

12 2025 VOL. 354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지역한인회장 간담회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16:00

장소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의실



1991-2025

 PT. BOSUNG IN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
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
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
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현)가 주최한 ‘2025 지역
한인회장 간담회’ 현장.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모인 지역
한인회장들이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안 공유를
통해 한인 사회의 공동 발전을 다짐했다.

0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중국 일대일로,
인도네시아의 기회인가 그림자인가

08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임원 골프 모임 성료

12 [재인니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제8회 종합예술제 다함께 TOGETHER

14 ORIGINAL KOREAN BBQ 새마을식당
(Saemaeul) 자카르타 SCBD, 세르폰에
이어 PIK 까지 확대

16 [재인니한인청년회]·[재인니외식업협의회]
버카시 고아원서 K-Food와 K-Pop으로
하나된 콜라보 봉사활동 진행

18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제7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및 인도네시아
문학 10집 발간 기념회

19 [더카시 풍경 22] 아버지의 봄 | 이지완

20 [한인회 이모저모]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단, 11월 주요 행사 준비 ‘박차’

21 [한인회 이모저모] ‘2025 지역 한인회장
간담회’ 성료, 전국 회장단과 ‘상생
네트워크’ 가동

contents

2025. 12. 통권 35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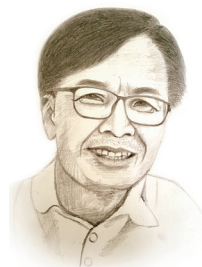
- 22** [지역한인회 이모저모]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한인회,
‘2025 김치의 날’ 및 ‘K-POP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 24**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뉴스 브리핑
- 26** [주아세안대표부]
한-아세안 영화제 2025
성황리 개최
- 27**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년 12월 마감하며
- 28**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으로 글로벌 교육의 동반자
관계 구축
- 30**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자바로 떠난 소풍 길: 고(故)
이태복 시인의 영면을 기리며
- 33** [조연숙의 인도네시아 천 개의 이야기]
인도네시아 한인은 어떤
디아스포라인가
- 34** [JKS 소식] 협동과 끈기를 배우는
행복한 날!
- 36** [서상영의 한방칼럼 32]
약초꾼 이야기 2화 (2)석산
- 38** [자필목연] 적도의 묵향
고국나들이 성황과 손인식
작가 한글 작품 기증
- 39** 《뮤지엄 인도네시아》 저자
김정옥 씨, 따만 미니(TMI) ‘문화
홍보대사’로 공식 활동 시작
- 40** [행복에세이] <수필 부문 장려상>
윤형일 『휴가』
- 43** 한국 제약회사 종근당,
고촌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44** [권영경의 열두 달 식물칼럼 시즌 2]
향의 식물학: 인센스는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식물의
마지막 언어
- 47** 권영경 작가와 함께한 코윈
한글학교 ‘생명 존중’ 특강
- 49** 땅그랑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1등 제슬린의
네 번째 한국 방문기
- 51** [한인문화연구원]
한인문화연구원 문학상 시상식
- 54** [한인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 바틱(Batik)으로
짜낸 25년의 기도, 시집
《불멸의 테이블》 출간
- 56** [생태문학상 대상]
(동화)여덟 개의 꽃잎모양 빵
‘로띠 끔방 와루’를 아세요?
- 60** [반려동물 랜선집사 26]
영원한 우리집 막내 몽이
-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2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 64** [아중의 코-인사이드 7]
이 다정함이 모여
아주 조금만 더 행복해지길
- 65** 2025 임원회비 납부명단
- 68** 생활정보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중국 일대일로, 인도네시아의 기회인가 그림자인가



논설위원 신성철

2023년 10월 개통해 자카르타-만둥 구간에서 상업 운영을 시작한 고속철도 후시(Whoosh)가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를 ‘부채 함정’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프라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야심작인 후시의 개통 2년간 실적을 돌아보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일대일로’(BRI) 사업 전반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일대일로 구상은 이미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중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인도네시아는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관문이자 니켈·석영모래 등 전략 광물을 보유한 나라다. 중국에게는 매력적인 자원 파트너이자, 인도네시아에게는 귀중한 투자 유치 기회이다. 하지만 이 협력은 이제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지정학·재정·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에 놓여 있다.

고속철·니켈산업단지·전기차·태양광 논란

후시의 개통은 인도네시아 인프라 현대화의 상징적 사건이다. 이동시간을 3시간에서 40분대로 줄인 효과는 분명하고, 자바 경제권의 연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성과 뒤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 변화, 즉 중국 표준의 정착이라는 문제가 자리한다. 인도네시아는 고속철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운영·부품·정비·향후 업그레이드가 자연스럽게 중국 표준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인프라의 소유권은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핵심 기술·데이터·운영 체계가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채무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심 인프라의 표준이 중국 중심으로 굳어질 경우 기술 자립성 저하라는 본질적 위험이 뒤따른다.

중부솔라웨시주 모로왈리 산업단지는 중국 투자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다운스트림 전략을 실제 산업으로 구현한 핵심 지역이며,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서 세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공 역시 중국 기업의 기술·설비·운영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제·가공·산업단지 운영의 핵심 노하우가 중국에 집중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중국 투자는 광물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리아우제도 램팡섬의 태양광 패널 원자재 공장, 서부자바의 전기차 제조 공장 등 신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미래 산

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확장은 긍정과 우려가 공존한다. 긍정적인 면은 신산업 육성과 투자 유입이고, 부정적인 면은 핵심 공급망의 중국 편중 심화이다. 중국은 태양광·전기차에서 이미 세계 최대의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 흐름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경제 협력의 심화가 곧 외교·안보 관계의 밀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해역에서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치해 왔으며, 필요할 경우 해군이 중국 어선에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즉, 인도네시아는 경제 협력과 주권 문제를 분리해 관리하는 ‘헤징 전략’(Strategic Hedge)을 택하고 있다.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면 불가능한 대응이다. 인도네시아 외교의 특징은 경제에서는 유연하게, 주권에서는 단호하게다. 다만 이러한 균형은 정권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대일로 사업의 대출 구조는 대부분 국영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한다. 겉으로 보기에 국가 부채가 급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나 기업이 떠안게 될 수도 있는 우발 채무(Contingent Liability)가 누적되는 구조다. 즉,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문제는 흔히 말하는 ‘채무의 덩(Debt Trap)’ 자체라기보다, 프로젝트 기반의 집중된 리스크다.

일대일로 관련 중국인 노동자 유입 논란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서 “중국인 불법 노동자 천만 명”과 같은 과장된 루머가 퍼져 있지만, 실제 정부 발표는 2만 명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고용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이 괴리는 단순한 통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반중 정서, 경제적 불안, 역사적 기억 및 국내 정치 세력의 부추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 기업이 건설·운영 과정에서 기술자·관리자를 다수 투입하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단순직에 머무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현지 반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 왜곡이 빠르게 퍼지는 환경에서는 이 문제는 향후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과제: 경제 이익과 주권 리스크의 동시 관리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는 중국 투자를 계속 받을 것이다. 니켈·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리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일대일로 프로젝트 계약에 기술 이전, 현지 고용 비율 등을 더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영기업의 중심 구조가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자 유입 논란은 감정적 반응이 큰 영역이다. 정확한 정보 공개와 고용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끝으로 중앙아시아·중동·ASEAN 내 교역 확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일 현실적 대안이다.

일대일로는 인도네시아에게 기회이자 부담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균형 감각 있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기술 주권, 사회 통합, 국가 재정 및 외교적 자율성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과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고, 투자를 활용하되 사회 갈등을 축소하는 방식. 이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향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임원 골프 모임 성료

- 사업 성과와 통합 플랫폼 비전 공유하며 미래 다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중헌)는 지난 2025년 11월 19일, Suvarna Jakarta Golf Club에서 한 해 동안 헌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임원 골프 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임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동행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임의 비용은 한인회에서 부담했으며 한 해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회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편, 임원 골프 모임에 앞서 11월 18일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의실에서 ‘지역 한인회장 간담회’가 먼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석하여 신임 회장들의 상견례를 겸하고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한인회 간의 연대와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주요 사업 보고 및 한인회 비전 제시

오전 11시부터 오찬과 경기 운영 안내,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골프 경기가 진행되었다. 저녁 만찬 시간에는 공식 행사가 이어지며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만찬 행사에서 한인회 임원 및 지역 한인회장 소개가 끝난 후, 김중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동행이 있었기에 한인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도들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달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2025년 한인회의 주요 성과와 활동 보고가 상세히 발표되었다. 이어진 한인회 통합 플랫폼 구축 보고는 김중헌 회장의 핵심 공약인 ‘한인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분쟁·중재 시스템 도입’을 현실화하며 한인회가 교민 사회의 신뢰받는 허브로 도약할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 화합과 시상으로 단합 다져

공식 보고 후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가수 공연과 임원진의 노래가 진행되며 화합을 다졌다. 또한 양영연 명예회장, 정필립 명예고문, 박재한 명예회장의 건배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골프 시상이 진행되며 행사의 재미와 활기를 더했다.

<골프대회 시상 결과>

- 위너 (Winner): 강수한 부회장
- 메달리스트 (Medalist): 이근대 부회장
- 1st 러너 (1st Runner-up): 김신 이사
- 니어리스트 (Nearest): 송진은 이사 (28cm)
- 롱기스트 (Longest): 한인청년회 최민환 총무 (251m)
- 부비 메이커 (Booby Maker): 구형희 이사 · 강진호 이사
- 부비 (Booby): 송광택 부회장

이번 모임은 한 해 동안 임원들이 이룬 노고를 격려하는 것은 물론, 한인회의 발전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내실과 결속을 다진 행사였다.







제8회 중합예술제 다함께 TOGETHER

2025. 12. 6(토) 오후 2시
롯데 에비뉴 아이스팰리스(4F)

EXHIBITION 전시안내

05~06 December 2025

LOTTE SHOPPING AVENUE THE ICE PALACE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 -----Director 김준규
THE KOREA WRITERS ASSOCIATION IN INDONESIA

시화 전시

김주명 최하진 김부건 김현진 김보미 사심 이지완 윤형일 장원정 김보배

꿈캘리협회-----Director 오순옥
DREAM CALLIGRAPHY ASSOCIATION

한글 디지털을 입다

오순옥 전수정 김순호 류동순 권길순 문현숙 이경미 김숙연 차미영 박수명 노송 이기훈

한인 꽃꽂이회-----Director 김수남
KOREA FLOWER ARRANGEMENT ASSOCIATION

치유와 희망의 향기

김수남 김경애 김가령 김경미 박정아 보미 정수인 연승희 이연정

방주, 꽃비 - 김수남

벚꽃이, 여행 - 김경애

그리움의 여정, 월이 꽃으로 피어나다 - 정수인

시골길 - 공동작품

묵향 민화협회-----Director 최호윤
TRADITIONAL KOREA PAINTING

전통과 색채의 아름다움

최호윤 김미경 김단율이 조경진 이동희 이현애 이원경

정조대왕, 행차반도, 맹호도 - 최호윤

파초도 - 김미경

신사임당의 조충도 - 김단율이

책가도 - 이동희

어우동과 구찌 - 이원경

화조도 - 조경진

조충도 - 이현애

12월 6일(토) 오후 2시

향기로운 커피 위에 예술이 머문 순간

커피 시음회-----





문예총
TOGETHER

토) 오후 2시
이스펠리스(4F)

ATION
합니다

아 한인문예예술총연합회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PERFORMANCE 공연안내

06 December 2025

LOTTE SHOPPING AVENUE THE ICE PALACE

오픈세레머니 - 시낭송

그리운 안쫄 (김준규 문예총회장)

재인니 자카르타 한인 오케스트라 KISO-----Director 허민경 KOREA INDONESIA STRING ORCHESTRA

The Way To School(김광민 Time Travel) Hollo Arirang(한돌, 이승철ver)

Golden(Huntrix, K-pop Demon Hunters)

Violin 김보현 김효민 박현주 배지혜 이성화 손하린 한수정

Cello 김준서 김조엘 김경순 김범서 박기태 박은정 박재은 백성희 오시현 이옥순 황지우 허민경

Flute 차지희 Piano 이지연

자카르타 한인무용단-----Director 정방울 JAKARTA KOREAN DANCE ASSOCIATION

남도 소고춤

정방울 최새미 강아름

JKWC 자카르타 한인 여성 합창단-----Director 송예선 JAKARTA KOREAN WOMEN'S CHOIR

홀로 아리랑(한돌 작사/작곡) 최진사택 셋째 딸(전우중 작사/작곡, 김재우&홍종건 편곡)

지휘-송예선 반주-오현정

[Sop] 구영진 김다애 김옥희 김하나 박정호 설미라 엄지영 유정미 이현주 채송화 함민 허순경 황윤숙 홍정자

[M.Sop] 이나라 유한주 최인영 김효성

[Alto] 김소라 송말희 이가영 전남희 장해숙 한규연

색소폰 동호회-----Director 이강용 KOREA SAXOPHONE CLUB

대니보이(Danny Boy)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강용

JKCC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Director 송예선 JAKARTA KOREAN CHILDREN'S CHOIR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김현철 작사/작곡) 도레미송(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

내 나라 우리 땅(박수진 작사/조원경 작곡)

지휘-송예선 반주-김보현

[Sop] 김소윤 김은서 김지을 김해윤 문선진 신지유 안은수 유태이 윤선하 이규연 이서울 이설 이수빈 이주원

임솔리 정아영 차서윤 황다운

[Alto] 김현서 박재은 신제이 안준서 오수인 유제인 윤이준 최단비 한수정

인도네시아 무용단(Universitas Negeri Jakarta)---Director 정방울 INDONESIA DANCE ASSOCIATION

부채산조

Nur Halizah Alisa Rini Marissa Dewi Jannah Puspa Rachel

찬 조 출연

재인니 한인 음악협회-----Director 유은영 KOREAN MUSIC ASSOCIATION

신아리랑(양명문 작사/김동진 작곡)

Vocal 류유정 Pf 오현정

Christmas Celebrations, La La Land Medley (Arr by Leo Ahn)

Vn 한주영 Va 김정은 Vc 김아람 이혜미 Cb 유희영 Ff 유은영 Cl 안유향 Pf 허유경



ORIGINAL KOREAN BBQ 새마을식당(Saemaeul)

자카르타 SCBD, 세르퐁에 이어 PIK 까지 확대

- 한국에서 공수한 특제 소스와 레시피를 통해 한국 새마을식당의 맛을 그대로 제공
- 한국 추억의 정서가 깃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음식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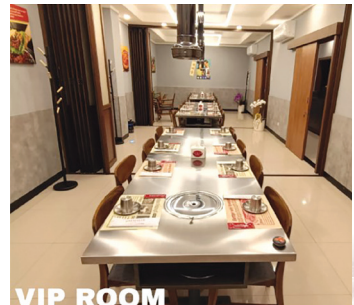
포토존
맛집



PIK에 새로 문을 연 새마을식당 3호점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프라이빗 룸
대형 인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연말연시 모임에 안성맞춤

인테리어
맛집



한국의 대표 외식 브랜드 새마을식당(Saemaeul)이 SCBD, 세르퐁에 이어 자카르타 북부의 핫플레이스인 PIK (Pantai Indah Kapuk) 지역에 3호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열탄불고기’와 ‘7분돼지김치’ 등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물론, K-BBQ의 대표 메뉴인 삼겹살, 부대찌개, 떡볶이, 잡채 등을 선보이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3호점 오픈과 함께 전 매장에서 다양한 소고기 메뉴를 신메뉴로 추가 출시해 더욱 폭넓은 고객층의 취향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이름이 곧 경쟁력, 새마을식당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제소스들과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고기를 사용하여 한국,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맛의 기준을 만든 새마을식당



K-푸드 대표주자 '열탄불고기'와 '7분돼지김치'

열탄불고기



7분돼지김치



신선한 돼지 목살을 굽기 직전에 특제 소스에 버무려 숯향 가득 구워내는 열탄불고기는 오직 새마을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한국인의 '밥도둑'으로 불리는 김치찌개를 새마을식당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뉴. 품질 좋은 돼지고기와 잘 익은 김치를 얼큰하게 끓여낸 짜글이 형태의 김치찌개로, 김가루를 곁들인 밥에 비벼 먹는 독특한 방식이 현지인들에게도 신선한 매력



새마을식당 SCBD 1호점



새마을식당 세르퐁 2호점

더욱 업그레이드 된 새마을식당

3호점은 다양한 셀피존과 함께 새마을식당의 신규 콘셉트를 인테리어 전반에 적용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한국의 최신 트렌드와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에는 소리 울림을 최소화하는 흡음 설비를 적용해, 대형 인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임 공간으로 마련했으며 연말 모임에도 적합하다.

"새마을식당은 한국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맛과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변함없는 '한 끼의 만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즐기던 편안한 식탁의 감성을 이제 SCBD, 세르퐁, 그리고 PIK에서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세요."

야경
맛집

재인니 한인청년회·재인니 외식업 협의회, 버카시 고아원서 K-Food와 K-Pop으로 하나된 콜라보 봉사활동 진행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회장 이승수)와 재인도네시아 외식업 협의회(회장 강진호)가 지난 11월 21일 버카시 소재 고아원을 방문해 2025년 하반기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9명, 재인니 외식업 협의회 6명 등 총 15명의 봉사단이 참여해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트렌디한 '탕후루 만들기' 체험... 맛과 흥이 넘친 날

두 단체는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근 자카르타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국 간식 '탕후루'를 체험 활동으로 준비했다. 아이들은 봉사단과 함께 과일을 쪼개 탕후루를 만들고 탕후루 덴

스를 추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K-Pop 댄스 공연, 미니 게임, 부채 꾸미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어졌다.

저녁 식사는 재인니 외식업 협의회가 준비한 'K-Food 뷔페'가 제공됐다. 메뉴는 아이들이 만든 주먹밥을 포함해 잡채, 두 가지 맛의 닭강정, 어묵 및 국물, 떡볶이 등 현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로 구성됐다.

“온 마을이 함께”... 한인 사회 십시일반 후원 잇따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처럼, 이날 현장에는 한인 사회 각계 인사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며 아이들의 든든한 ‘마을’



이 되어주었다. 나눔에 동참한 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승수 재인니 한인청년회장(여자 샌들 60개, 축구공 · 배구공 · 농구공 각 5개) △이동규 재인니 한인청년회 부회장(바지 · 재킷 100벌) △이정호 재인니 한인청년회 고문(오라뎨 150켤) △김중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스낵 10박스) △최테립 재인니 한인청년회 고문(현금 1,000만 루피아) △간재봉 대한체육회 부회장(티셔츠 150벌) △김문수 재인니 한인청년회 자문(인형 99개)

이승수 재인니 한인청년회장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심각한 화두지만, 우리 단체의 한인 청년들은 부지런함과 열정의 ‘봉사 DNA’를

타고났다는 사실을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진호 재인니 외식업 협의회 회장은 “현지에서 사랑받는 K-Food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 단체의 음식으로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재인니 한인청년회의 참신한 기획력과 재인니 외식업 협의회 전문성이 결합된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시너지 효과가 돋보인 봉사였다.

한인뉴스 편집국



초대합니다

제7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및 인도네시아 문학 10집 발간 기념회



초대문인: 강희진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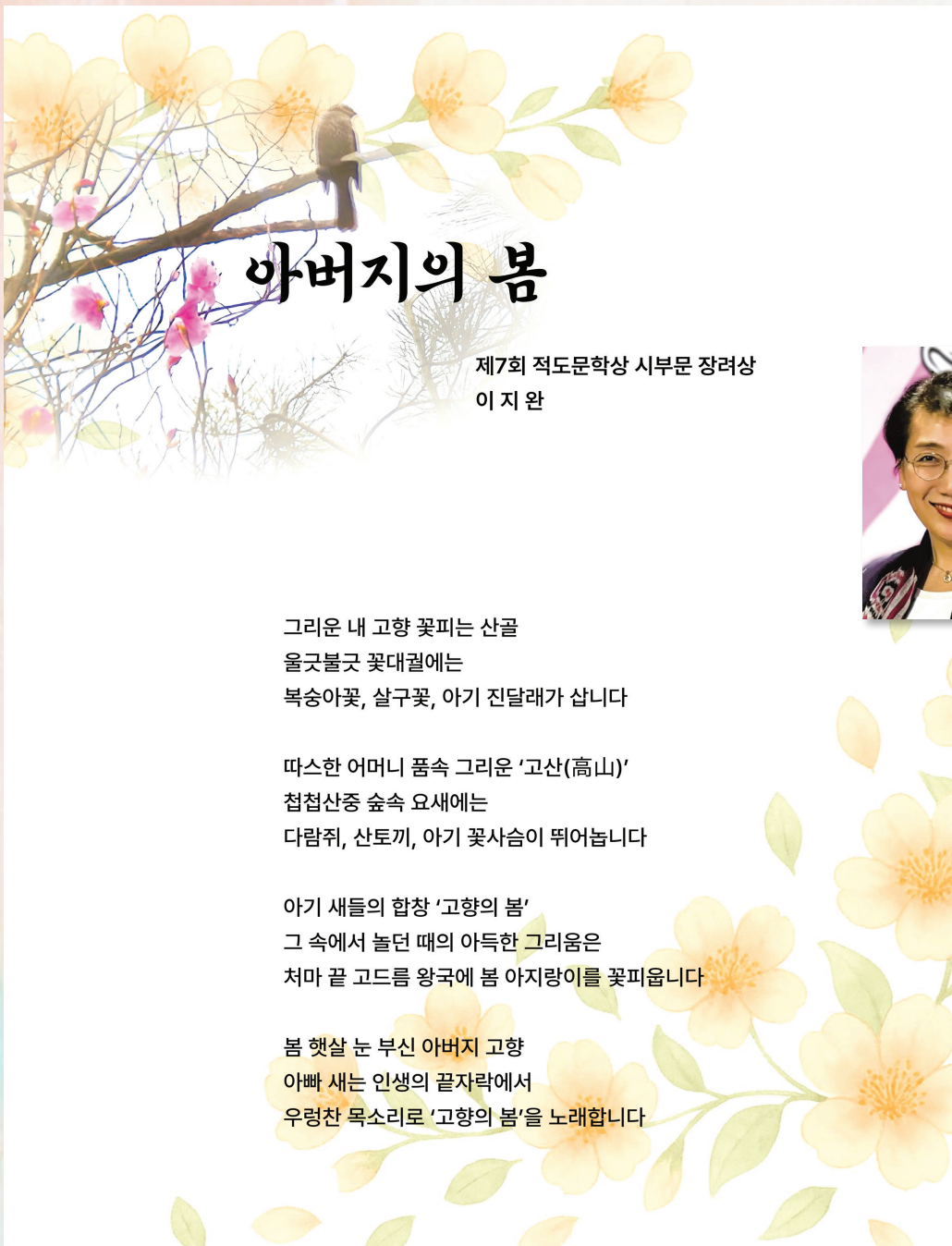
일시 : 2025년 12월 13일(토) 오후 3시

장소 : 청해수산 2층 (J1, Senopati No.49, RT.8/RW.3, Selong, Kec. Kby. Baru)

☎ 청해수산: +62813 1658 3349 / 인니문협: +62877 4988 3671

주최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문예총, 한인 포스트,
PT. CIPTA ORION METAL



아버지의 봄

제7회 적도문학상 시부문 장려상
이지완



그리운 내 고향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궐에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삽니다

따스한 어머니 품속 그리운 '고산(高山)'
첩첩산중 숲속 요새에는
다람쥐, 산토끼, 아기 꽃사슴이 뛰어놀니다

아기 새들의 합창 '고향의 봄'
그 속에서 놀던 때의 아득한 그리움은
처마 끝 고드름 왕국에 봄 아지랑이를 꽃피웁니다

봄 햇살 눈 부신 아버지 고향
아빠 새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고향의 봄'을 노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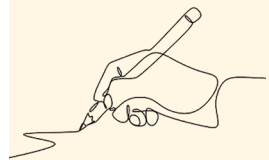
그동안 적도문학상 공모 공고를 한인신문에서 볼 때마다 글을 써서 응모하고 싶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공모가 올라온 것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고 시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큰 상까지 받게 해주신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제 병환이 많이 호전되신 아버지와 그동안 함께 고생한 가족들, 그리고 글이라는 제 소꿉친구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지완 「수상 소감문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단, 11월 주요 행사 준비 ‘박차’

- ‘지역 한인회장 간담회’ 및 ‘임원 골프 모임’ 세부 계획 최종 점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헌)가 11월 중순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수석단 준비 회의를 열고 만전을 기했다. 11월 4일, 한식당 예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종헌 한인회장을 비롯해 양태화·이지완·이정호 수석부회장, 임성필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11월 18일(화) ‘지역 한인회장 간담회’와 11월 19일(수) Suvarna Jakarta Golf Club에서 열리는 ‘임원 골프 모임’의 최종 세부 계획 점검이었다. 참석자들은 이틀에 걸친 두 행

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세부 일정과 동선을 점검하며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임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임원 골프 모임’은 한 해 동안 헌신한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김종헌 한인회장은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행사를 통해 한인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지역 한인회장 간담회’ 성료, 전국 회장단과 ‘상생 네트워크’ 가동

- 김종헌 회장, “세계한인회장대회 후속, 실질적 협력 논의에 집중”

- 지역 간 공동 발전 모색... 현안 및 협업 방안 심층 논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최한 ‘2025 지역 한인회장 간담회’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4시 한인회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봉사하는 지역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김종헌 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 당시 여러 회장님들과 나누었던 논의를 발전시켜, 더 많은 지역 회장님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자리가 필요했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한인회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역별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 회장이 제안한 대로 “자랑하고 싶은 활동이나 각자의 고민을 말하며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신임 회장단 상견례와 협업 방안 논의로 채워진 공식 회의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한식당 ‘예원’으로 이동해 만찬을 함께 하며 교류를 지속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한인회 임원 골프모임이 진행되어 회장단 간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원거리에서 참석한 지역 회장들을 위해 항공편 이용 시 공항 픽업 서비스와 호텔 숙박을 지원하는 등 회장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한인회, ‘2025 김치의 날’ 및 ‘K-POP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 김치·한복·K-POP이 하나 된 발릭파판, 양국 문화교류의 새 이정표
- 김치의 날 행사 200명, K-POP 페스티벌 500명 운집



양국의 국기가 담긴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인
허령 작가와 참가자들



시상 후 K-POP 페스티벌 1위를 차지한
사마린다 Reviver팀의 기념 촬영

재인도네시아 칼리만탄한인회(회장 나성문)는 2025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김치의 날'을 맞아 인도네시아 동부칼리만탄주 발릭파판시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이 김치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첫 공식 기념행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2025 김치의 날': 회의 30번 1주일 운송이 일군 성과

오전 10시부터 MaxOne Hotel Balikpapan의 Nusantara Ballroom에서 열린 김치의 날 기념 행사에는 현지인 및 교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전통음식,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나성문 회장은 환영사에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

정성·공동체 정신을 담은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직접 체험하는 김장 프로그램이 양국 국민을 잇는 따뜻한 다리 역할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자카르타에서 한국 음식과 닥종이(한지) 인형 공예를 알리고 있는 허령 작가가 양국 국기가 담긴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와 20여 가지 한국 전통 반찬 전시를 선보였다. 또한 발릭파판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 10명으로 구성된 김치 시범팀이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등 김장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시연해 현지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권태운 사무총장은 두 달간 약 30회의 오프라인 회의를 거쳤으며, 칼리만탄 지역의 신선한 채소 수급이 어려워 자바 지역에서 1주일간 운송해 재료를 공수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치 담그기 체험과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프닝 기념식을 맡은 한국·다문화·인도네시아 어린이 23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양국 국가를 합창하며 감동을 안겼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지역 주요 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11



나성문 칼리만탄한인회장(중앙), 강원준 총영사를 비롯한
내·외빈들의 단체 기념 촬영



‘2025 K-POP 페스티벌’에 참가한 15개 팀(150명)의 단체 기념 촬영



김치 담그기 전 과정을 시연 중인 한인 주부 10명으로 구성된 ‘김치 시범팀’

월 22일 ‘김치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김치 담그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나눔·공동체 정신이 전해지기를 기대했다. 칼리만탄 동포사회의 역할이 한국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칼리만탄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일궈낸 이번 행사는 동포사회 발전의 귀중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준 총영사는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동부칼리만탄주 루디 마스우드·세노 아지 주지사의 축사는 아리브 무르얏노 국장이, 발릭파판시 라흐마드 마수드 시장의 축사는 라티 쿠수마 소장이 각각 대독하며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025 K-POP 페스티벌': 18시간을 달리고 주차장에서 서 연습한 15개 댄스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K-POP 페스티벌에는 발릭파판, 사마린다, 반자르마신 등 인근 도시에서 15개 팀, 총 150명의 K-POP 댄스팀이 무대에 올랐다. 일부 참가자들은 18시간 버스를 타고 올 만큼 열정이 뜨거웠다. 연습실이 부족해 지하주차장 등에서 연습한 청년들은 청중의 환호를 받았다.



김치 담그기 체험하는 내·외빈들

수상 결과

- 1.동부칼리만탄주 사마린다 Reviver 팀
- 2.동부칼리만탄주 사마린다 A-Plus 팀
- 3.남부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Avengers 팀

김유진 수석부회장은 반자르마신에서 발릭파판까지 18시간 거리를 음향·조명·특수효과 장비와 전문인력을 직접 이동시켜 지방 도시에서 보기 힘든 높은 수준의 무대 환경을 조성했다.

나성문 회장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해외 지방 도시의 K-Food, K-POP 문화 확산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동포와 기업이 많지 않은 칼리만탄 지역에서 드물게 열린 대규모 문화 행사로 한국의 음식·전통·예술·음악을 현지 사회에 널리 알리며 양국 우정을 더욱 단단히 만들었다.



한국 전통 김장 문화를 체험하는 참가자들



한복 입고 기념촬영 중인 행사 사회(김가은, 우)와 통역(조원경, 좌)



양국의 어린이 23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경제 |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의 화폐개혁에서 배울 점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액면가를 같은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개혁인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환율 재조정을 한다면 루피아화 가치 상승은 물론 거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저하경제 양성화다. 이 과정에서 세금 징수 및 거래 추적을 통한 불법자금의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루피아 화폐 단위에서 ‘0 세 개’를 삭제하되 구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리디노미네이션 계획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성공적으로 화폐개혁을 시행한 튀르키예와 가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튀르키예와 가나 모두 저하경제 안정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시점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고, 그 결과 결제 시스템이 개선되고 자국 통화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강해졌다. 튀르키예는 2005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옛 리라에서 ‘0 여섯 개’를 삭제한 신(新) 튀르키예 리라(YTL)를 도입했다. IMF 프로그램과 대규모 재정 개혁의 지원 속에 진행된 조치는 튀르키예 통화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가나 역시 2007년에 세디(cedi)를 리디노미네이션해, 기존 1만 세디를 1 신(新)세디로 전환했다. 회계 단순화와 통화 신뢰 회복이 목적이었다. 이 개혁은 한 자릿수 물가 상승률, 안정적인 성장, 강력한 대국민 소통 등 우호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상 거래에 큰 혼란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

트리메가 증권(Trimegah Sekuritas)의 파흐룰 풀비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잠재적 리디노미네이션을 뒷받침할 탄탄한 거

시경제 기반을 갖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파흐룰은 자카르타에서 “지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신뢰받는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견고한 저하경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런 모멘텀은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며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흐룰은 리디노미네이션이 단순히 ‘0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국가 결제 시스템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가격의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센(sen)’과 같은 소액 화폐단위를 부활시킬 것, 저하경제 안정 유지할 것,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연계해 디지털 결제를 용이하게 만들 것 등이다.

그러나 안달라스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샤프루딘 까리미는 리디노미네이션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사업이라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들에서 관심을 돌리는 것일 뿐이다. 인도네시아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액면가라는 ‘착시적 안정성’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새 화폐 발행, 금융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서·가격표 조정 등 막대한 물류비와 기술적 복잡성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주 국회 청문회에서 중앙은행이 당장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 안정과 성장 유지가 더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지만, 현재 우리는 경제안정 유지와 성장 촉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원 금융·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했다.

인니 신이민법 “자격 갖춘 외국인에 ‘글로벌 시티즌십’ 제공”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외국인 체류 정책 ‘인도네시아 글로벌 시티즌십(GCI, Global Citizenship of Indonesi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11월 19일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역사적·가족적·정서적 연고가 깊은 외국인에게 영구적이고 무제한의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이민법은 성인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GCI를 소지하면, 무기한 방문·거주·취업이 허용돼, 참정권 등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GCI와 기존 KITAP(장기체류허가)은 다르다. 두 제도 모두 인도네시아와 장기적 관계를 가진 외국인에게 관련된 제도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권한·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GCI는 해외 인도네시아인(디아스포라)과 인도네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안된 정책 패키지 개념이다.

즉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이중국적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과 인도네시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경제·문화·투자·학술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GCI 소지자는 여전히 외국 국적자(Warga Negara Asing)이며, 인도네시아 시민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투표권이나 정치적인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 여권을 받을 수 없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은 “GCI는 이중국적 논쟁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인도네시아와 깊은 연고를 가진 외국인에게 폭넓은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들의 기존 국적을 존중하고 국내법을 전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국적 원칙을 엄격히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자나 그 후손들이 모국과의 실질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GCI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폭넓은 외국인 그룹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I 신청 자격 기준은 #전(前) 인도네시아 시민 #전 시민의 2세대 후손 #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전 인도네시아 국민의 합법적 배우자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다.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때 인도네시아 영토였던 국가의 시민 #분리주의 활동에 연루된 인물 #외국 정부의 공무원·정보기관 요원·군인 신분자 등이다.

GCI 신청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한국 제약회사 종근당, 고촌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 인도네시아 현지 장학생 선발, 2025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 ▶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저개발국가 현지 대학생 502명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정재정)은 10일과 11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종근당고촌재단은 1973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종근당 창업주 故 고촌 이종근 회장의 사재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이번 수여식은 반둥공과대학과 인도네시아국립대학에서 정재정 이사장을 비롯한 각 대학 학장 등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개 대학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국내 대학원으로 입학한 유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12월에는 우수 장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일주일간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국내 장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현재까지 재단의 지원을 받은 500여명의 글로벌 장학생들이 세계의 각 분야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 협력과 발전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013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개발국가의 인재를 지원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해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장학생 50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회사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OTTO社와 함께 합작회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이하 CKD OTTO)를 설립했다.

2018년 현지에 12,588㎡ 규모의 항암제 공장을 준공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으며, 그 이듬해인 2019년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구인 울레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항암 주사제 최초로 할랄(HALAL) 인증을 받은 바 있다.

CKD OTTO(대표 백상현)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제약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2조원이고 향후 연평균 성장률(CAGR) 10%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CKD OTTO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MENA 지역 수출 사업 외에 아세안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년 12월을 마감하며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12월은 기업들이 연간 결산 및 세무조정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세금 납부, 신고, 환급 절차 등 모든 세무 행정이 통합 관리되는 ‘Coretax System’이 시행된 원년이다.

이에 따라 여러 조세 규정들이 Coretax System에 맞춰 변경되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행령 PMK 15/2025 시행을 비롯한 여러 조세 행정 변화로 인해 연말 점검 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다음은 2025년 12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세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1. 2025 사업연도 법인세(PPh Badan) 사전 점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는 2026년 4월이지만, 2025년 결산을 앞두고 다음 핵심 항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1) 비용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야 한다.
- (2) 원천세 및 부가세 일치 여부: 신고된 원천세(PPh 21/23/26) 및 부가세(PPN) 항목과 재무제표상 계정과목 간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3)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 이전가격 보고서(Master File, Local File) 등 문서화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4) 부채 비율: 세법상 규정된 부채 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인식: 차입금 이자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금액 및 인식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

2. 2025년도 개인소득세(PPh OP) 사전 점검

202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6년 3월 말까지이지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래 사항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순재산 증가액 확인: 연말 국외/국내 계좌 잔액, 차량 및 부동산 구매 내역, 주식 취득 등 12월 말 재산 내역을 2024년도 신고된 재산 내역과 비교하여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된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해외 금융 소득 관련: 해외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 공제 내역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2025년도는 여러 세무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본격 적용되고 Coretax System이 도입된 첫해이다. 따라서 12월의 결산 및 사전 점검은 매우 중요하며, 준비가 철저히 된 납세자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고 2026년의 규정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으로 글로벌 교육의 동반자 관계 구축

- 한국, 인니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어 보급 및 유학생 유치 본격화를 위해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신설

교육부(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재외국민 평생 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도네시아(11.25.화)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되어 있다. 1960년대 일본에 처음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재외국민 대상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설치 국가와 지역, 교육원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왔으며, 특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을 계기로 유학생 유치가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에서 한국 유학 지원을 위한 한국교육원의 공적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를 통해 유학 수요 창출 및 국내 정착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한국교육원(총 11개원): LA, 오사카, 하노이, 호치민시, 타슈켄트, 알마티, 태국, 시애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2026. 1월까지 개원 예정)

한국교육원 개요

◆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과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설치한 재외교육기관(운영근거: 「재외국민교육법」)

◆ 재외국민 평생교육 및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등 한국어 보급, 유학생 유치,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등

◆ 총 22개국 47개원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원장 김규년)은 경제협력과 국외 인적자원 개발, 한류 등으로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12년에 태국, 호치민시한국교육원, 2020년에 하노이, 말레이시아 교육원이 신설된 이래 동남아 지역에서 5번째로 신설되는 한국교육원이다.

1973년 9월 17일 한-인도네시아 간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양국은 건설·석탄·임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특히 2023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해 왔다.

세계 인구 4위(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에는 약 27,300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기에 한국교육원 개원과 동시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어 보급 및 유학생 유치 등의 확산도 기대된다.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은 11월 25일(화) 오전 10시(현지시간)에 개원식을 개최하였고,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사대리,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교육부 대표단, 인도네시아 교육부 고곳(Gogot Suharwoto) 실장, 나시오날대학교 나나율리아나(Nana Yuliana) 어문대학장, 김종헌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등 동포 사회 주요 인사를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의 개원을 축하하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은 그간 괄목할 만큼 높아진 글로벌 교육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걸맞게 그 역할이 나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이 글로벌 교육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 ◆ 원장: 김규년
- ◆ 위치: Jl. Jendral Gatot Subroto Kav. 58
Korea Center Jakarta Selatan 12950
- ◆ 시설 현황: 원장실, 사무실(자료실),
강의실 3개 (강의실 중 2개는 강당 겸용으로
활용 가능)



자바로 떠난 소풍 길

- 고(故) 이태복 시인의 영면을 기리며

김준규 시인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천재 시인 천상병 선생은 그의 지독한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승에서의 힘겨웠던 삶을 애둘러 “아름다운 소풍”이라 하였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 잡고 ... 중략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 천상병의 시 「귀천」에서

이태복 시인은 유작 시 「귀향」에서 그려낸 그의 인도네시아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사실적으로 실토하고 있다.

녹록지 않은 길
무지와 오만 가득한 아집을 따라
고난을 자청 한길

인생 사흘길 되려나
원다섯 해
구불구불 비틀비틀
이제 내려가야 할 나이
돌아보면 아련하다

- 이태복의 시 「귀향」에서

고인은 비록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여유도 없이 짧은 생을 마감하였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난과 번뇌를 부정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행위(Economic Activity)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하였다.

“형님 저는 직장이나 사업이 생리에 맞지 않아요.”

말끝을 흐리며 먼 산을 바라보는 이태복 시인의 눈빛은 담담하였다. 고국에 있는 가족과도 멀리한 채 그는 이미 마음을 비우고 자카르타를 떠나 중부 자바의 살라띠가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뒤이어 시인이 되어 있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에 심취하며 지방의 전통 민속 춤과 노래를 발굴하고 공연 등을 통하여 많은 방문자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장편소설 『소설 암바라와라』를 집필하며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이 몇 년을 보냈다. ‘암바라와’ 성은 네덜란드의 통치 시절, 중부 자바 총독부로 일제 식민통치 시대에는 군사기지로 사용하며 위안소를 설치, 운영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태복 작가의 『소설 암바라와』는 현지인 위안부 할머니의 고증과 조선 처녀의 위안부 실태를 증언한 고(故) 정서운 할머니를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이다.

한편, 이태복 작가는 암바라와 성의 역사적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설득하여 유적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한인사회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홍보 한바 있다. 이태복 작가는 무소유적 가치관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늘 남루한 옷차림에 뚝배기처럼 질박한 미소로 현지인들과 조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고단한 현실 속에 건강의 악화를 실감하고도 자신을 혹사했던 시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난하고 외롭지만 문학과 예술을 위해서 유유자적하던 고인은 어느 날, 중부 자바의 소풍길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시집 『자바의 꿈』에 수록된 고향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5년 11월에





고향

이태복

내 고향은
아름답고 슬펐어요

우리 집은 새마을운동으로
초가 머리를 깎고 슬레이트 모자를 썼지만

겨울의 정오
라디오에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단음을 뜯는 기타 멜로디는
내 마음을 뜯어 슬펐지요

내 고향은
벗짚마저 귀해 마구간으로 간
황량한 들판 같은 마음에
여백이 많아 쓸쓸했지만
넓은 밤하늘의 별처럼
꿈이 채운 여백은 넉넉했습니다

자바의 악기 가물란이 있고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한 게 없는 자바에서
그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내 고향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은 어떤 디아스포라인가

— K-POP과 세탁소 사이, 한국·중국 디아스포라가 남긴 질문

조연숙 |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해외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어떤 디아스포라인가?”라는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에게 이 질문은 더 복잡적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주해 문화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넓혀 왔지만, 아직 장기적 정착 경험의 짧고 구조적 기반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Pop 데몬 헌터스》(케데헌)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EAAO)는 서로 다른 두 디아스포라 서사가 어떻게 정체성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며, 한국인이 어떤 디아스포라가 될 것인가를 다시 묻게 한다.

먼저 '케데헌'은 미국에서 한국계 디아스포라의 현재를 경쾌하고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K-POP 아이돌이자 악령을 잡는 헌트릭스 소녀들, 그리고 주인공 루미의 몸에 나타나는 문양은 한국적 정체성과 이민자로서의 흔들림을 상징한다. 문양은 백인 중심 사회에서 느끼는 이질감, 숨기고 싶은 한국성, 타자화의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악령과 맞설 때 빛을 내며 힘의 원천이 된다. 상처가 능력이 되는 과정이다.

영화 속 요소들은 한국적 문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굿의 장단을 닮은 리듬, 한복의 선을 차용한 동작, 팬덤의 응원봉 빛이 악령을 밀어내는 장면은 한국계 디아스포라가 문화적 자원을 힘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상징한다.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 K-POP 커버댄스, 한국어 교육, 한식 체험, 지역사회 봉사 등 문화적 접점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과도 연결된다. 한국적 정체성을 숨기기보다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케데헌'의 서사와 겹친다.

그러나 '케데헌'은 단순한 낙관은 아니다. 루미의 문양이 사라지지 않듯,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는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작품은 무너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조용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현실에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반면 EEAAO는 중국계 디아스포라가 겪어온 오랜 배제와 생존의 압박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주인공 에블린은 세탁소 운영, 세무 조사, 부모 부양, 언어 장벽 같은 현실적 부담을 혼자 떠안는다. 이민 1세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생존 책임은 모녀 갈등의 핵심이 된다. 영화의 멀티버스는 에블린이 선택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삶을 펼쳐 보여주며, 이민자가 잃어온 가능성과 정체성의 파편을 상징한다.

딸 조이가 만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베이글’은 의미 상실과 공허함의 은유다. 부모 세대가 겪은 생존의 무게가 2세대에게 정체성의 혼란으로 전가되는 과정이다. EEAAO의 무거움은 1882년 중국인 배제법, 직업 제한, 인종적 고립 등 누적된 역사적 조건의 반영이다. 정체성보다 생존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던 중국계 디아스포라의 현실이 에블린과 조이의 관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두 작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중요한 통찰이 있다. 첫째, 우리는 현재 '케데헌'에 가까운 흐름 속에 있다.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와 한류의 호감도는 인도네시아 한인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긍정적 환경을 만들어 준다. 둘째, 그러나 세대가 깊어질수록 EEAAO가 던지는 질문도 피할 수 없다. 중국계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장기적 정착 과정에서 어떤 과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1.5·2세대의 진로, 부모세대와의 가치 차이, 현지 사회 편입의 문제는 점차 현실적 이슈가 될 것이다.

결국 질문으로 돌아온다. “인도네시아 한인은 어떤 디아스포라인가?” '케데헌'의 선택과 EEAAO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무너를 드러내고 어떤 방식으로 현지 사회와 관계를 맺을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두 작품은 그 선택을 미리 보여주는 조용한 거울과 같다.

협동과 끈기를 배우는 행복한 날! 「JKS Sports Day」



JKS 제공

2025년 11월 7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KS, 교장 이선아)에서는 협동과 끈기를 배우는 행복한 날! 「JKS Sports Day」 행사가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JKS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함께 어울리는 행사였다.

아이언맨, 슈퍼걸, 헐크 세 팀으로 나뉜 학생들은 스포츠 정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고, 교감 선생님 말씀과 전교 회장단의 선서, 그리고 체육 선생님과 함께하는 준비운동으로 스포츠데이는 멋지게 시작되었다.

1, 2학년 학생들은 강당에서 훌라후프 릴레이, 허들 넘기 릴레이, 카드 뒤집기, 스쿱볼 경기 (Scoopball), 장애물 넘기와 같은 다양한 신체 활

동을 하였고, 3~6학년 학생들은 테니스 코트와 운동장에서 피구와 축구 경기를 하며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중간 쉬는 시간에는 5, 6학년 학생들의 K-Pop 댄스 공연이 있었고, 이어서 학부모 줄다리기 경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열띤 응원으로 학부모들의 줄다리기 경기를 응원하였다. 마지막 경기는 열띤 응원 속에 치러진 팀별 계주 경기였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Mr. Flor 선생님은 “우리 JKS 학생들의 스포츠맨십과 팀워크, 열정이 멋진 스포츠데이를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데이 행사가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지난 호에 이어

약초꾼 이야기 2화

- 석산(3)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는 물 길으러 가기 전 내게 약초 하나씩을 외우게 하셨다. 이름, 모양, 색깔, 특징, 효능, 부작용, 주의사항까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읊도록 하시며 가르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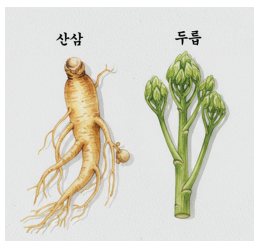
열다섯,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몇 해 동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산을 올랐다. 엄격했지만 늘 이끌어 주셨다. 스무 살, 처음으로 혼자 3박 4일 산행에 나섰다. 아직 단풍은 덜 물든 초가을에 높게 솟은 바위와 청량한 숲의 웅장함은 여전했다. 이틀째,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만 알려준 비밀의 장소에 다다랐다.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간밤에 정승 셋이 무서운 표정으로 집 앞에서 있는 꿈을 꾸었다. 각별히 길 조심하거라.”

잠자리를 급히 찾다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다. 주변을 살피다가 다섯 개 잎을 보았다. ‘오가피겠지.’ 싶었는데 옆에 붉은 열매는 삼복이 아닌가!

설마, 설마... 심! 봤! 다!

처음 산삼과 마주한 순간. 그 옆에 또 하나, 또 하나. 전부 세 구였다. 나는 산의 정령에게 세 번 큰절을 올리고, 격양된 가슴을 가라앉힌 뒤 조심스레 주변 흙을 파냈다. 반나절을 잊은 듯 파내 얻은 산삼을 이끼에 싸 품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펄쩍 뛰며 기뻐하셨다. 더덕주를 꺼내 전을 부치고 두릅된장국을 끓이셨다. 술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사발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약초 지식] 산삼 · 두릅

- 산삼: 체력 · 면역 회복, 음양의 균형을 돕는 약초의 정수.
- 두릅: 봄철 대표 산나물로, 혈액순환과 피로 해소에 좋다. 어린순만 식용한다. 혹독한 겨울이 몇 번 지나갔다. 장작은 절반이나 타버렸고 바람은 매서웠다. 약초꾼의 겨울은 쉼이 아니라 준비의 계절이다. 장날 판매를 위한 약초 손질부터 봄 장비 손질까지 하루가 빠듯했다.

[약초 지식] 겨울철 약초 보관법

- 추운 계절에는 약효가 응축된다.
- 약초는 햇볕에 말리거나 장독 · 쌀독에 보관해 습기와 곰팡이를 방지한다.

폭설이 멎고 이틀째 강풍이 불던 날, 어머니 심부름으로 만든 소화제 두 통을 들고 건너 마을로 갔다. 관광객이 늘어 마을은 북적였고, 국밥으로 몸을 녹인 뒤 서둘러 산등을 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앞쪽에 노루인지 사람인지 분간 안 되는 것이 쓰러져 있었다.



서상영 | 미르한의원 원장



[약초 지식] 국밥과 인삼탕의 효용

- 추위에 노출된 몸을 덥히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 좋다.
- 인삼은 혈류를 개선하고, 뜨거운 국물은 흡수를 돕는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다. 놀라 뒤로 주저앉았다가, 다급히 처자를 들쳐 업어 집으로 달렸다.
 “어머니! 어머니!”
 약재 창고에서 뛰어나온 어머니는 먼저 이부자리를 깔고, “어서 아궁이에 불을 넣으라!” 하
 셧다. 나는 생애 최고의 화력으로 불을 지폈다. 사흘 밤낮을 곁을 지키며 무사히 깨어나길 빌었
 다. 타들어가는 장작보다 내 가슴이 더 까맣게 탔다. 한 달 후, 어머니가 뒤뜰로 나를 부르셨다.
 “또 온천에 다녀오는 것이냐?”
 “네, 설화 씨가 좋아해서요. 겨울이라 시간도 많고, 바람도 쐬고...”
 나는 감추지 못한 웃음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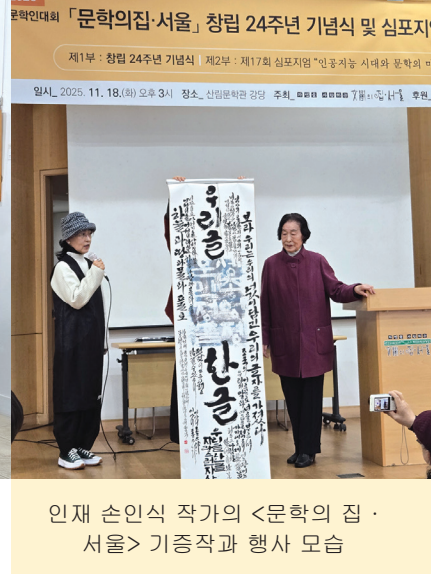
[약초 지식] 머루주

- 머루는 야생 포도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 좋다.
- 민간에서는 술로 담가 순환 개선과 신경통 완화에 썼다.

“행색을 보니 귀한 집 자식인데 어찌자고 마음에 품나. 미련 버리고 신고해서 떠나보내라.”
 나는 고개를 돌리며 듣기 싫다는 몸짓을 보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니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다.”
 “이대로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죽을 것 같아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결
 혼이나 해보고 죽을래요.”
 땅에 묻어둔 머루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설악의 겨울비도 내 가슴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새해가 밝고, 결국 어머니도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세 아이를 얻었다. 82년생 첫째
 황백, 두 살 터울로 둘째 황금, 셋째 황연. 연이를 낳으며 나는 결심했다.
 ‘세 뿌리 산삼을 아이들이 크면 유산으로 남기겠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백이는 고등학생 무렵이면 나를 대신할 만큼 자랐다. 속으로는 ‘내
 뒤를 이었으면’ 했지만,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금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산삼을 몰래
 팔아 나이키 신발과 바꿨다. 화를 내려다 문득 생전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다.
 ‘형편 나아지면 금이 옷은 새것으로 사주거라.’
 그날 나는 금이가 모아둔 구슬을 들고 학교를 찾았다. 그 뒤로 금이는 눈빛이 달라졌다. 여름 산
 행,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데 벌이 내 앞을 맴돌았다.

지난 호에 이어

韓方



적도의 목향 고국나들이 성황과 인재 손인식 작가 한글 작품 기증

자필묵연 제공

인도네시아 한인서예동호회 자필묵연과 (사) 한국서협 인니지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세 번째 고국나들이> 전시를 성공적으로 펼쳤다.

타국에서 우리 전통문화 서예를 배우고 익힌 한인 24명 출품회원들의 문화적 역량을 뽐낸 이 전시는 한국 서단의 많은 작가들과 동포들의 관심을 받으며 감동의 장이 되었다. 특히 전시 기간이 2025년 전국체전과 맞물려 인도네시아 동포들의 방문이 많았다.

이번 전시를 기념하여 발간한 책에는 100여 점의 작품 외에도 참가 회원들의 에세이 22편과 인재 손인식 작가의 <아호 이야기>가 함께 실려, 일반적인 도록과는 차별화된 도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편, 2025년 11월 18일 옛 안기부장 공관을 문학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학의 집 · 서울>에서는 창립 24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동호 이사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오세영 시인의 축하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인재 손인식 작가의 작품 증정이 있었다. 기증작은 2025년 세계서예비엔날레 출품작으로, 김후란 명예 이사장의 시 <우리글 한글>을 회화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이어 송기창 국립 오페라단 아카데미 교수의 축하 공연과, '인공지능 시대와 문학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대 교수 방민호 시인 등 문학평론가 및 시인이 참여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뮤지엄 인도네시아》 저자 김정옥 씨, 따만 미니(TMII) '문화 홍보대사'로 공식 활동 시작

- 국립박물관 한국어 도슨트 및 《미시캣》 등 저서 보유... TMII 투어 및 연구 계획 밝혀

인도네시아의 국가 문화유산을 집약적으로 전시하는 따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다(TMII)가 한국인 김정옥 씨를 지난 10월 4일 문화 홍보대사(Duta Budaya TMII)로 공식 위촉했다.

TMII, 한국인 전문가 김정옥 씨 '문화 홍보대사' 위촉

TMII 코리 아궁(Kori Agung)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전 군도의 바틱 퍼레이드 행사'에서 라트리 파라미트라(Ratri Paramitra) TMII 대표이사는 현 반튼 주 문화관광본부장인 에밀 시위(Emil Siwi) 국장과 함께 김정옥 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라트리 대표는 이번 임명의 주요 취지를 인도네시아 38개 지방도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MII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국내외 인사를 1차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우수 인력 전문가들을 기회가 되면 추가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홍보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30년 인도네시아 문화 전문가, 저술·도슨트 경력 부각

이번에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정옥 씨는 1995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30년간 현지에서 거주해 온 베테랑 전문가다. 현재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Indonesia)에서 한국어 담당 도슨트로 활동 중이며, 인도네시아 문

화를 심도 있게 다룬 저서 《뮤지엄 인도네시아(Museum Indonesia)》와 이슬람 문명을 소개한 《미시캣(Misikat: 이슬람 문명의 빛)》 2권을 집필하여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었다.

김 홍보대사는 한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30년간 인도네시아의 삶 속에서 이 문화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며, 따만 미니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TMII 투어 및 홍보 책자 저술 등 적극적 활동 예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김정옥 홍보대사는 우선 1차적으로 매월 TMII 투어 및 연구를 시작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TMII 홍보 책자 저술과 도슨트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옥 씨 주요 경력]

- 현 따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다(TMII) 문화 홍보대사 (Duta Budaya TMII)
- 현 국립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Indonesia) 한국어 담당 도슨트
- 저서: 《뮤지엄 인도네시아(Museum Indonesia)》, 《미시캣(Misikat)》



<수필 부문 장려상> 윤형일

『휴가』



윤형일 | 은행 주재원으로 자카르타 근무(2023.8~)

소설과 수필 쓰기가 취미

얼마 전 친구에게 갑자기 카톡이 왔다.

“자카르타는 살 만해?”

어느새 삼십 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가는 이 친구는 대학 동아리 동기이다. 90년대 초반, 대학에 들어간 나는 고등학교 내내 꿈꾸던 밴드 동아리에서 전자기타를 치겠다는 꿈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다.

“기타 안 들고 왔어? 어이구야. 그래 그럼 이걸로 서태지의 하여가 리프 한번 쳐볼래?”

밴드 동아리 선배는 한심하다는 표정과 함께 기타를 넘겨주었다. 광주에서 상경한 나는 주눅이 들기 싫어 언제나 오버액션하면서 나를 당당한 척하며 처신했는데, 그 선배의 표정과 질문은 그 동안 날 가려주던 커튼이 순식간에 불어온 바람에 날아가 버린 느낌이었다.

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밴드 동아리에서 나와 허우적거렸고 무슨 인연인지 학교 한 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고전 기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는 이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였다. 나보다 한참 늦게 동아리에 가입한 그와는 기타나 음악보다는 술과 담배를 함께하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쌓았다. 그나, 나나 갈 곳이 마땅하게 없어 동아리방에 ‘죽치고’ 있던 치들 중 하나였고, 그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마치 된장을 숙성시키듯 느릿느릿하게 시간을 함께했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듯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며 자연스레 소원해지게 되었다.

나는 동아리 카톡방을 통해 가끔 친구들의 소식을 보기만 접하며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였다. 몇 년에 한 번씩 동문회에 나가긴 했지만, 그냥 얼굴만 비쳤을 뿐이라 그를 언제 만났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았다.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자카르타에 파견을 가게 되었고, 출국하기 전 그래도 동기들에게 뭔가 신고를 해야 할 거 같았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간다는 말과 함께 자카르타에 올 일 있으면 “숙식(宿食)”은 안되더라도 “숙(宿)”은 제공해 주겠다는 농을 쳤지만, 당연히 별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지난 2년 동안 내게 아무도 “숙(宿)”을 부탁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2년 만에 단톡방이 아닌 개인톡으로 그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다.

“자카르타는 살 만해?”

살 만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살기 어렵다고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 거지란 생각을 하는데 카톡 하나가 더 날아왔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자카르타 가는 데 얼굴 볼 수 있어?”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난 그가 질문을 보낸 시간과 내가 답을 보낸 시간이 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답장을 했다.

“당연하지. 와. 대박이다. 네가 처음이야. 내 초대에 응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 적이 있던가. 이런 생각은 밀려오는 걱정으로 금세 밀려났다. 뭘 어떻게 하지? 휴가를 낼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채워야 하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나처럼 주재원으로 오게 되어 사전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무슨 우연인지 아이들 방학 때문에 가족들은 그가 오기 이틀 전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당연히 집에서 채워도 된단다. 덕분에 친구에게 체면치레를 하겠구나 싶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최근 신문 기사와 CNN이 선정한 가장 맛있는 음식에 선정된 사떼아얌(Sate Ayam), 른당(Lendang) 등등의 정보를 습득한 상태였지만, 공교롭게도 관광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

휴가를 내기 어려워서 금요일 하루 일정을 짜주었다. 따만 파타힐라(Taman Fatahillah)와 마스지드 이스띠끄랄(Masjid Istiqlal), 그리고 길 건너 있는 대성당(Our Lady of the Assumption Cathedral), 모나스 타워(Monas)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근처에 있는 파사르 산타(Pasar Santa)까지...

첫날을 너무 강행군을 시킨 건지 저녁 자리에서 만난 그는 조금 지쳐 보였다.

“와 파사르 산타 좋더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의 소감이었다. 파사르 산타는 남부 자카르타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작은 시장인데, 지하에는 전국의 커피를 아주 싼값에 파는 원두커피 가게가 있고, 1층엔 우리나라 8~90년대에 봄 직한 작은 가게들, 2층 한쪽에는 현지 음식을 파는 와룽(Warung)이라고 불리는 작은 식당이 가득하고, 반대편에는 흥대에서나 볼 법한 힙(Hip)한 물건을 파는 가게들과 간식을 파는 곳이 가득하다.

파사르 산타는 내가 자카르타에서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이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니즈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몇 안 되는 곳이라는 게 내 평가다. 그와 내가 닮은 게 있었던가. 최소한 내 대학 시절 기억 속에는 술과 담배를 좋아했던 거 외엔 없었는데. 그저 나이 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라니 했다.

다행히 주말은 내가 하루종일 투어가이드를 해 줄 수 있어 자카르타 이곳, 저곳을 다녔다. 이상하게 오히려 내 맘이 급해져 무리인 줄 알면서 아침 일찍 자카르타 동물원(Ragunan Zoo)부터 시작하여 엠블록(mBlock), 멘텡(Menteng), 글로독(Glodok)까지 하루에 해결했다.

자카르타가 전 세계에서 쇼핑몰이 가장 많은 도시라지만 정작 쇼핑몰은 한 군데도 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만 데려가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다행히 생각보다 그는 즐거워했고, 나는 남은 건 사진뿐이라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더 신나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닷새 내내 이런 갑갑스런 방문에 대해 가타부타 이렇다 할 말이 없어 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일정이 다 끝나가도록 묻지는 못했다.

어느새 출국 전날이다. 뭘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았다. 평일에는 회사일 핑계로 제대로 저녁 한 번 못 먹고 방문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있던 터라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회사에서 일찍 나와 집으로 향했다. 회사 근처 마트 주류 코너에 들러 “Batavia Whisky” (발리에서 만든 위스키)를 한 병 사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내가 묻고 싶던 몇 가지를 알아서 얘기해주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난 건 6년 전이란다. 난 기억도 나질 않았는데 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전라남도 어느 작은 시골에서 장례를 치렀었는데, 문득 ‘그가 서울에서 장례식장까지 걸린 시간이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의 그것과 얼추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6년 새 그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는 전국의 직장을 돌며 대한민국의 어느 직장인처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전공이 기계공학과였던 그는 주로 지방의 제조 관련 공장에서 일을 했고, 한 달 전쯤 마지막, 그의 말로는, “마지막” 회사에서 나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단다. 무얼 준비하고 있냐고, 창업자금은 있냐고, 같이 일할 사람은 있냐고 물어 봤어야 했을까?

술을 워낙 잘 먹고 좋아하는 그였지만, 위스키 때문인지 어느새 살짝 취한 그는 지난 5일이 꿈같이 좋았다고 했다. 기계공학과 출신 이공계 50대 남자의 입에서 나온 “꿈같이 좋았다” 는 나 도 모르게 코끝을 시큰하게 했다. 아마 나이 때문이겠지. 아마 그럴 거야.

2년째 자카르타에 살고 있지만 난 매일매일, 정말 거의 매일 매일이 꿈같이 좋다. 겨우 2년밖에 살지 않았기에 이런 생각을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최소한 내겐.

어제밤 비행기를 태워 보낸 후 한참을 공항에 앉아 있었다.

삼발(Sambal)을 싸 줄걸, 코코넛 비누라도 더 챙겨줄 걸. 와양(Wayang) 기념품이라도 사줄 걸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제 휴가가 끝나가네.

그는 내 휴가를 위해 왔던 거였나 보다.



<수상소감문>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장려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또래의 벗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를 찾아와 함께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벗과의 만남이 주는 기쁨과 여운을 글로 풀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을 마음에 담아 글로 나누고 싶습니다.

주아세안대표부, 한-아세안 영화제 2025 성황리 개최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제공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이하 대표부)는 2025년 11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4일간 자카르타 Pacific Place CGV에서 한-아세안 영화제 2025(ASEAN-Korea Film Festival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표부는 영화를 통한 한국과 아세안 간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한-아세안 영화제를 처음 개최했으며, 2022년 재개한 이후 지난 4년간 매년 개최해왔다.

한국 및 아세안 영화 8편 상영

올해 영화제에서는 4편의 한국 영화와 아세안 국가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영화 4편이 상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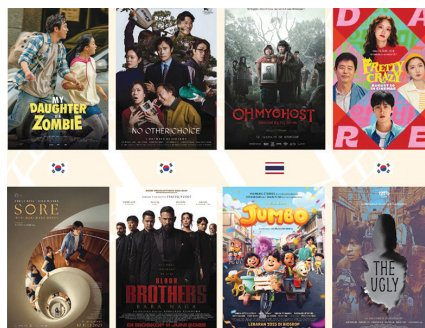
개막식에 Sultan 상원의장 등 주요 인사 참석

11월 19일(수)에 개최된 이번 영화제 개막식에는 Sultan Najamudin 상원의장, Derry

Aman 주아세안 인도네시아 대사 등 주아세안 외교단, 아세안 사무국 측 인사와 여타 아세안 관계자가 다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좀비가 된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생존, 인간다움의 의미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좀비딸’을 개막작으로 함께 관람했다.

이장근 주아세안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영화가 한국과 아세안뿐 아니라 아세안 사람들을 이어주고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이야기

향의 식물학: 인센스는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식물의 마지막 언어

권영경 | 『식물일기』 저자

“가끔 향이 쓰는 글씨를 보면 한편의 오래된 문장을 읽는 기분이 들어요!!”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센스(향)에 불을 붙이는 일이다. 탁! 불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꺼지면서 하얀 연기가 피어 오른다. 그 모습을 바라 보며 식물이 지냈던 생의 궤적을 떠올린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가 끌어올린 미량의 원소들, 빗물의 기억을 간직한 수분, 햇빛이 층층이 쌓아 올린 세포벽. 그 모든 것이 응축된 결과물이 마침내 불씨를 만나 연기로 변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나는 종종 한편의 오래된 문장을 읽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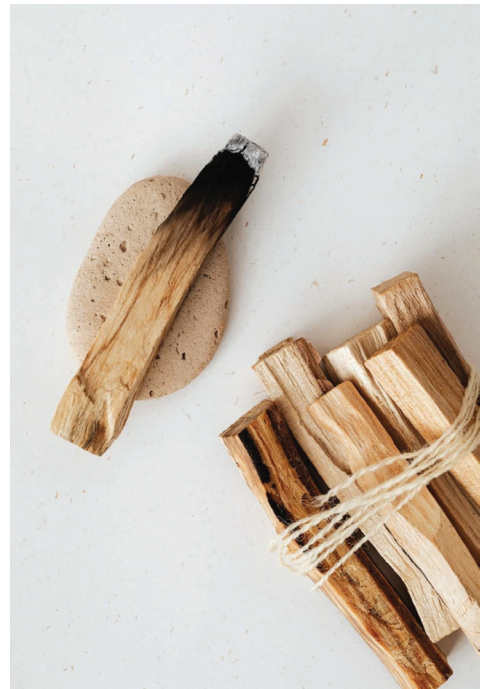
인센스는 마치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식물의 마지막 언어가 아닐까? 나의 인센스 사랑은 이미 20년 넘는 역사를 가진다. 90년대 후반 대학교에 입학한 나는 한창 홍대앞을 자주 서성였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비도 꽃이었다. 꽃을 떠나기 전에>라는 독특한 이름의 바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독특한 분위기의 인도 풍 바였는데 나는 그곳에서 처음 인센스를 알게 되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던 묘한 나뭇잎 타는 냄새. 뇌를 뚫고 전해지던 알싸하게 맵던 향긋한 꽃 내음, 그 뒤로 치고 오르던 비릿한 물 냄새. 한창 향초가 유행 했을 때도 나는 인센스를 배신한 적이 없다.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향기를 만든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 혹은 포식자를 쫓기 위해서.

인센스에 쓰이는 식물의 대부분은 수지(resin), 정유(essential oil), 나무껍질, 꽃, 뿌리, 씨앗에서 채취된다. 수지(Resin)는 유향(Frankincense), 몰약(Myrrh), 벤조인(Benzoin) 같은 것인데 보통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흐르는 진액이 굳어 만들어진다. 항균작용이 뛰어나 고대에는 일종의 “자연 소독제”로 여겨졌다. 백단(Sandalwood), 침향(Agarwood) 같은 목재(Woods)는 나무의 중심부를 사용하는데 수십 년, 때로 수백 년 동안 천천히 변화하며 깊은 향을 만들어 낸다. 식물의 ‘연륜’을 향으로 맡는 셈이다. 계피(Cinnamon)나 정향(Clove) 같은 껍질은 강한 향을 내고 라벤더, 로즈, 세이지 같은 꽃과 허브는 해충을 쫓는 효능이 있다. 이런 원료들은 분쇄·발효·건조를 거쳐 대나무 스틱에 묻혀 인센스가 된다. 인센스 한 개비 속에는 식물 한 생애 동안의 시간과 기후, 상처와 회복의 기록이 촘촘히 담겨 있다.

향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식물학적 근거를 가진 화학적 성분들이 우리의 신경계를 직접 자극한다. 향은 식물이 만든 작은 화학 무기지만, 인간에게는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약초가 되어 왔다. 아래는 각 원료 별 효능을 정리한 것이다.

- **유향(Frankincense):** 항균·진정 작용. 중세 유럽에서는 전염병이 돌 때 교회 바닥을 유향 연기로 훈증했다.
- **몰약(Myrrh):** 항염·방부 작용이 뛰어나 상처 치료에 쓰였다.
- **백단(Sandalwood):** 신경 안정 효과. 서늘하고 부드러운 나무 향이 심박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침향(Agarwood):** 정신 집중을 돕고 잡념을 걷어낸다. 불교권에서는 명상 전 반드시 태웠다.



- **세이지(Sage):** 공간 정화 의식에 사용. 잎의 방향 성분이 공기 중의 미생물 수를 줄인다는 연구도 있다.
- **계피 : 정향(Cinnamon & Clove):** 항산화와 강력한 항균 효과. 고대 항해사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 향신료를 금처럼 취급한 이유다.
- **팔로산토(Palo Santo):** 남미에서 “성스러운 나무”라 불리는 이 향목은 죽은 뒤 몇 년을 더 기다려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향이 된다.

우리가 향을 태우는 습관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결국 두려움의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고대 이집트인은 유향과 몰약을 태워 악령과 질병을 몰아낸다고 믿었다. 로마 제국에서는 전염병이 돌면 공중 목욕탕과 길거리에서 향 연기(fumigation)를 피웠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 시기에는 의사들이 부패한 공기를 정화한다며 향주머니(pomander)를 몸에 달고 다녔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침향을 태워 신을 초대하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여기기도 했다.

향 연기는 시대마다 목적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위협을 ‘보이는 연기’로 대항하려 했던 인간의 마음이

다. 이 불안은 시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남아 있다. 어쩌면 우리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 뿐 아니라 마음속의 상처나 서늘한 허전함을 몰아내기 위해 향을 태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자주 인센스가 타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불씨가 식물 조직을 하나씩 태워 가며 연기를 만들어내는 순간, 연기는 기묘하게도 문장처럼 보인다. 층층이 말리던 연기가 위로 솟구쳐 곡선 한 획을 그리고, 바람을 만나 선이 흔들리며 흐릿한 문장이 완성된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사라져 버리는. 마치 허공에 글씨를 쓰고 그것을 누군가가 손으로 가볍게 지워버리는 것 같다.

오늘 나는 10년 넘게 기록해 온 SNS 계정들을 잃었다. 일상을 꼼꼼히 기록한 글, 여행에서 찍은 사진, 아이의 성장 영상, 때로는 어떤 날의 울음, 또 어떤 날의 환희를 담은 짧은 글귀들까지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서버의 오류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허탈함과 씁쓸한 여운,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12월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들 또한 사라짐이 아닌 다음을 위한 여백이길 바라며,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실감 뿐이다. 그래서, 아침은 아니지만 인센스 하나를 또 태운다. 내가 사랑했던 순간들이, 향처럼 피어 올랐다가 바람에 흩어져 버린다.

기록은 오래 남기 위해 쓰지만, 기억은 원래 흘러지며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라졌기 때문에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하는 방식. 식물이 제 몸의 일부를 불태워 마지막 향을 남기고 소멸하는 것처럼, 나의 기록들도 그렇게 자기 역할을 마쳤는지도...

향이 모두 타고 난 자리에 남는 것은 작은 재 한 줌이다. 그 재는 식물이 살아온 환경과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SNS를 잃어버린 자리, 나도 모르게 작은 재 같은 것이 남았다.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내 마음 어딘가 미세하게 축적된 향기의 잔상,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쓰고 싶어 지는 충동, 사라짐의 아픔이 주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깊이.

식물의 수지는 상처를 통해 흘러나오지만, 그 상처가 굳어 향의 원료가 된다. 내 마음의 상처 또한 언젠가 굳어 새로운 향이 되기를...

비록 사라진 기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이야기들이 응축 되길 바라본다. 피어 오르는 연기가 어쩌면 또다시 사라질 기록들을 닮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공간을 채우는 그 향기에 위로를 받는다. 식물이 남긴 마지막 향기와, 내가 잃어버린 기록이 남긴 빈자리.

그 두 사이를 오가며 나는 깨닫는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다음 향을 위한 여백이라는 사실을.

권영경 작가와 함께한 코원재이니 한글학교

'생명 존중' 특강

— “이끼도 숨을 쉬나요?” 질문 쏟아진 ‘나만의 숲’ 테라리움 만들기



“유리병 속에 작은 지구를 심었어요”

지난 11월 8일(토),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원재이니 한글학교(KOWIN JAEINNI HANGEUL SCHOOL) 교실 문을 열자 향긋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 냄새가 아이들을 반겼다. 지난 9월 이론 수업에 이어 학생들이 직접 식물을 만지고 심어보는 ‘테라리움(Terrarium) 만들기’ 실습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한인뉴스에 <열 두 달 식물칼럼 시즌2>를 연재하며 교민들에게 식물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 <식물일기>의 저자 권영경 작가가 식물의 언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통역했다. 아이들의 집중도와 깊이 있는 체험을 위해 초등 저학년 반과 고학년 반으로 나뉘어 총 2회에 걸쳐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긴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눈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작은 이끼 하나, 돌맹이 하나도 제 자리가 있다.”

권 작가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은 유리병 바닥에 흙을 깔고 이끼와 작은 식물들을 조심스레 옮겨

겨 심었다. 마치 작은 지구를 창조하듯 신중한 손길이었다. 유리병 안에 작은 집 모형까지 자리를 잡자, 삭막했던 유리병은 ‘나만의 작은 숲’으로 변신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학생은 자신이 만든 테라리움을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그냥 풀인 줄 알았는데 유리병 안에서 숨을 쉬고 산다는 게 신기해요. 제 방에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물도 줄 거예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특강은 아이들이 생명을 직접 돌보는 책임감을 배우고 자연과 교감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권영경 작가는 “몸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생명의 온기를 느끼는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에너지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원재이니 한글학교 관계자는 “식물 에세이 작가인 권영경 선생님과 함께해 더욱 깊이 있는 수업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원재인니 한글학교는 코원 인니지부 소속으로 2006년 땅그랑 밀알한글학교로 시작해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19년째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규모: 자카르타, 땅그랑, 찌까랑 3개 지역 운영 (매주 토요일, 연 30주 수업)

❖ 구성: 최희정 교장, 김석주 교감 외 교사 21명, 학생 약 240여 명

● 자카르타 8개 반(106명), 땅그랑 7개 반(72명), 찌까랑 5개 반(61명)

❖ 특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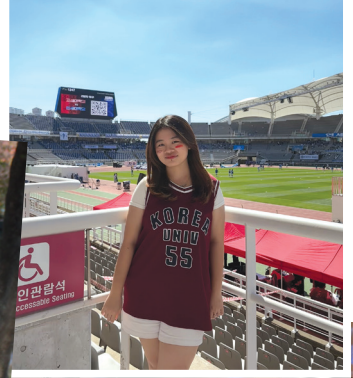
- 방과 후 심화 과정(글쓰기)
- 다문화 가정 지원(어린이 말하기 반, 성인 한국어 교실)

❖ 주요 활동: 한마음 운동회, 도전! 골든벨, 한글날 글쓰기 대회 등

❖ 최근 성과: 지난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한글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사 연수회'를 주최, 인니 전역 11개 한글학교 50여 명의 교사를 초청해 한글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인뉴스 편집국

2025 땅그랑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1등 제슬린의 네 번째 한국 방문기



Jesslyn

Universitas Multimedia Nusantara 졸업생
현 세종학당 교육생

운명 같은 인연의 시작

올해 10월 Universitas Multimedia Nusantara (UMN) 커뮤니케이션 과학 (Communications Science) 학과를 졸업한 저는 학점 4.00 만점에 3.89로 전체 276명 중 10등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의 취업과 석사 장학금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2024년 가을학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학금을 받아 고려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수업료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 사람 언어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커리어와 꿈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통해 방송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문화와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국의 가을과 정(情)

2025년 10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네 번째 방문이며 운 좋게 모든 비용을 지원받아 무료로 올 수 있었던 건 두 번째였습니다. 2019년과 2023년 두 번은 여행 목적이었고 세 번째는 정부 장학금을 받은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아? 왜 자꾸 한국에 가니?”

“한국을 또 간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문화 언어 음식 화장품 영화 카페 바다 계절하고 노래까지 다 좋아해서 한국을 좋아.”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야기

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情)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레 스며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옷게 해준 예능 프로그램들 흥미를 갖게 된 언어 자주 즐겨 듣던 노래들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따뜻한 감정까지.

이번에 네 번째 방문이지만 한국은 제게 늘 새롭고 설레는 곳입니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 맛집에서의 즐거운 시간 다시 연결된 인연들 그리고 발걸음이 닿은 그 모든 곳들이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정신으로 차지한 1등 이번 한국 방문은 땅그랑 세종학당 덕분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세종학당이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졸업 논문 조사를 하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안 되면 말고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작은 용기가 불씨가 된 저의 인생은 선택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무

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표현들 중에서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청바지’는 ‘청춘은 바로 지금’의 줄임말입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나 응원이 필요할 때 또 마음이 조금 허전할 때 ‘청바지’라는 말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대본을 준비하고 틈날 때마다 연습했습니다. 한국인 친구 진선에게 대본의 흐름과 발음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짧고 정신 없던 시기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언어로 말하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점과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깨닫는 동시에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나침반 같은 한국 방문

이번 한국 방문의 소감에 이야기하자면 뭐 더 말할 게 있을까요? 당연히 최고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에 한복을 입을 수 있었고 전 세계 74개국에서 모인 멋진 한국어 학습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거든요. 어릴 적 즐겨보던 방 송국 아리랑 TV에도 방문했고 생각지도 못한 태권도 체험도 했습니다. 한강 유람선 역사 박물관 들 한국민속촌 그리고 교촌치킨 체험까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를 탔습니다. 올리브영에서 6개월치 화장품도 쟁여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의 가을을 만끽한 저의 경험을 글 한 편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제 꿈을 향한 목표와 방향도 확실해졌고요. 다섯 번째로 방문할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문학과 예술로 잇는 '화합의 울림', 한인니문화연구원 2025 문학상 시상식 성료

- ‘스리위자야-수마트라 페스티벌’ 컨셉으로 양국 문화 교류의 정수 선보여
- 15년 역사의 ‘인도네시아 이야기’ 등 3개 부문 시상... AI 시대, 문학이 전하는 공감의 힘

문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 '한인니문화연구원 2025 문학상 시상식 및 축하공연'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행사는 인도네시아 해양박물관과 협력하여 ‘스리위자야-수마트라 페스티벌 (SRIWIJAYA-SUMATRA Festival)’을 핵심 테마로 기획되었다. <제14회 나의 인도네시아 이야기>, <제4회 생태 이야기>, <제2회 나의 한국 이야기> 등 각 부문 수상작을 축하하는 이날 자리는 재외동포청, 자카르타문화청,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해양박물관, KF, BODIMAX, 무궁화, KOSA, Tugu Group, 예원, 누들 킹, 한옥, 푸른치 등 양국 주요 기관 및 기업의 후원이 더해져 한층 높아진 행사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15년을 이어온 문학의 힘, 교류의 역사가 되다

한인니문화연구원은 2010년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을 제정한 이래, 문학을 매개로 한 양국 교류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왔다. 2021년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인도

네시아 생태 이야기>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어에 담아낸 한국적 정서를 발굴하는 <나의 한국 이야기>를 출범시켰다. 특히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해외 동포 단체가 주최하는 문학상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한인 사회 내 독보적인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1부: 화려한 개막과 생태적 상상력의 향연

채인숙 시인과 장대영 부원장의 사회로 막을 올린 1부는 5인의 난타 공연(아리랑, 동살풀이)과 앙골롱 연주(인도네시아라야, 애국가)가 어우러지며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사공 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9년 인도네시아 문화탐방으로 시작한 연구원이 340여 회의 문화탐방과 90여 회의 강연을 통해 양국을 잇는 중요한 문화 교교로 성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2010년 시작된 이 문학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진정한 이야기의 다리(Jembatan Cerita)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빈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이장근 주 ASEAN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올해 출판작들은 문학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며, 특히 학생부 대상 수상작인 강동진 학생의 <삶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 “토라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따뜻하고 울림이 있는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밋타홀로(Bapak Mochamad Miftahulloh Tamary) 자카르타 문화청장은 자카르타 주정부를 대표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학인들의 축제를 넘어 문화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50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자카르타의 문화적 다양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김중헌 한인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경국 자문위원은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 시대일수록 인간 고유의 공감과 사유를 가능케 하는 문학의 힘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언어와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자,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철호 한인니산협협력센터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생태 이야기 공모전 출판작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미래의 희망 씨앗이자 지구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힘”이라며 “청소년들이 전하는 생태적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쿠나르디 다르마 라이(Kunardy Darma Lie) KB Bank 국민은행장은 격려사를 통해 “문학은 금융처럼 미래를 설계하고, 사람을 잇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수상작들이 “두 나라의 삶을 잇는 소중한 기록이자 문화적 다리”가 되기를 응원했다.

축하 공연으로는 지테라 인도네시아 예술단이 ‘Tari Gending Sriwijaya(환영의 춤)’를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생태 이야기 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인도네시아 초등부





지한 미프트아후스 사다(Jihan Miftahus Sa'adah, 2학년) 학생과 한국 초등부 임솔리(MISJ G4) 학생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중간에는 이은주 K-pop 아카데미의 커버댄스와 지테라 예술단의 'Tari Piring(접시춤)'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웠다.

2부: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의 목소리

2부는 최경희 부원장(고려대학교 아세안센터 부소장)과 에바 라티파(Eva Latifah) UI대 한국학과 교수의 공동 사회로, 국경을 넘은 우정을 확인하는 <나의 한국 이야기> 시상식이 진행됐다. 영예의 대상 대사는 세니 수잔나 알와실라(Senny Suzanna Alwasilah, 반둥 파순단 대학) 씨가 차지했으며,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를 대신해 이성호 영사가 시상하였다. K-Art Studio 배애리 무용단의 '등불아리랑'과 The Bamboo's Melody의 양گل롱·아룸바 협주가 어우러진 2부 무대는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한 단체 사진 촬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3부: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한인들의 축제

다시 채인숙 시인과 장대영 부원장이 마이크를 잡은 3부는 상가르 메와르 부다야(Sanggar Mewar Budaya)의 우아한 'Tari Payung(우산춤)'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한인 동포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나의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학생부 대상은 강동진(Springfield School) 학생이 수상하여 이장근 주ASEAN 대사로부터 상을 받았으며, 일반부 대상은 조은아 씨에게 돌아갔다. 이성호 영사를 비롯해 쿠나르디 다르마 라이 국민은행장, 김경국 한인회 자문위원 등이 시상자로 나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행사의 대미는 지테라 예술단의 웅장한 역사 무용극 'Sendra Tari Kerajaan Sriwijaya(스리위자야 왕국)'와 두타 사만(Duta Saman) 팀의 역동적인 사만 댄스가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Tanah Airku(나의 조국)' 양گل롱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모든 수상자와 시상자가 무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며 한-인니 문화교류의 날은 깊은 여운을 남긴 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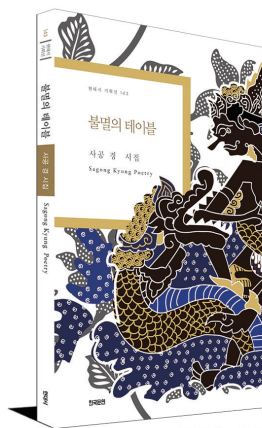


한인뉴스 편집국

욕심과 탐욕을 다 벗어버린 영혼으로 쓰는 시

사공경 시인은 시를 쓰는 일이 비텍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고 말한다. 시를 쓰는 일이 한 조각 천을 짜는 일과 같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천이 그냥 천이 아니라 역사를 감싸는 천이라고 할 때 시를 쓰는 일의 무게는 그만큼 커진다. 시의 내용이 역사를 포함해 인간 삶의 과거와 현재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신 앞에서 헛벗은 마음으로 그리는 비텍 문양과도 같다고 하면 시는 더 깊어진다. 신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인데 욕심과 탐욕을 다 벗어버린 마음으로 비텍 문양을 그려나가는 일이란 영혼으로 직물을 짜는 경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종환 (시인)



변형 국판, 144쪽, 값 13,000원

시인, 한·인니문화연구원장, 문화예술기획자. 저서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과 공동 저서 11권이 있으며, 2023년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바텍연구자로서 한세에스 24 초청전 등 다수의 전시를 했으며, 1999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사 시절 '문화탐방반'을 시작으로 (한인니 문화연구원)을 세워, 25년 넘게 인문·예술· 역사를 잇는 현장형 교류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메일: sagongikt@gmail.com

한국문연

현대시 기획선 143

불멸의 테이블

사공경시집



바틱(Batik)으로 짜낸 25년의 기도, 사공 경 시집 『불멸의 테이블』 발간

1999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을 이끌고 ‘문화탐방반’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25년. 이방인의 시선은 어느덧 현지인의 호흡이 되었고, 낯선 땅의 습기 찬 역사는 시인의 언어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인문과 예술을 잇는 가교로서 반평생을 바쳐온 사공 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이 신작 시집 『불멸의 테이블』을 펴냈다.

이 시집은 단순한 서정의 기록이 아니다. 식민 지배의 상처와 독립의 열망, 그리고 일상의 예술이 뒤엉킨 자카르타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시인만의 문체로 번역해 낸 인문학적 보고서에 가깝다. 2023년 ‘세계 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은 그가 지난 사반세기 동안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에 대한 건조한 증명일 뿐, 책에 담긴 무게는 그보다 훨씬 깊고 무겁다.

이번 시집은 ‘서시’와 ‘승리의 땅, 자카르타에서’로 문을 여는 제0장을 시작으로, 식민지배의 상징인 ‘바타비아의 오래된 항구’와 ‘역사 박물관’, ‘카페 바타비아’ 등을 담은 제1장 ‘파타힐라 광장에서’, ‘자바의 첫 망명객, 오랑 꼬레아 장운원’과 ‘독립 영웅, 양철성’ 등 역사적 인물을 조명한 제2장 ‘반쪽 폐로 지킨 나라’, ‘바틱’, ‘앙끌롱’ 및 표제작 ‘불멸의 테이블’을 통해 예술을 노래한 제3장 ‘신의 그림자, 와양’, 그리고 ‘자카르타의 우기’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등 이방인의 삶을 담아낸 제4장 ‘자카르타에서 생의 절반을 살다’까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네덜란드 식민 시대의 흔적인 ‘바타비아’와 잊힌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관광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역사의 그늘을 복원해 낸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바틱과 와양 인형극을 통해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세계관을 탐구한다.

사공 경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시는 나에게 일종의 영적 실천이었다”고 회고했다. “시를 쓰는 일은 역사를 감싸는 한 조각의 천을 짜는 일이거나, 신 앞에서 햇빛은 마음으로 그리는 바틱 문양과도 같았다”는 그의 고백은, 뜨거운 밀랍으로 천에 패턴을 입히듯 25년의 시간을 견디며 시어 하나하나를 새겨 넣은 장인의 태도를 연상케 한다.

이에 대해 채인숙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현지에서 저자가 ‘구루 사공(사공 스승)’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방인으로 시작해 모두의 스승이 된 그의 마음에도 불멸의 테이블이 차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인인문학아카데미의 해인 대표 역시 “영화 같은 60여 편의 시”라며, 현지 독립연구가로서 사공 경의 치열했던 삶을 증언했다.

이 책은 한 시인의 개인적 감상을 훌쩍 뛰어넘어 문화라는 도구로 두 나라의 역사를 통섭하려 했던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다. 자카르타의 우기처럼 축축하고도 뜨거운 삶의 냄새가 배어 있는 이 시집은 독자들에게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가장 우아하고도 서늘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참조] 더피플매거진 기사 “바틱 그리듯 25년 사유” ... 사공 경 시인, 인도네시아 역사·예술 담은 『불멸의 테이블』 펴내

저자소개 | 사공경 시인

시인, 한·인니문화연구원장, 문화예술기획자. 저서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과 공동 저서 11권이 있으며, 2023년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바틱연구자로서 한세에스24 초청전 등 다수의 전시를 했으며, 1999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시절 ‘문화탐방반’을 시작으로 《한인니문화연구원》을 세워, 25년 넘게 인문·예술·역사를 잇는 현장형 교류를 실천해 오고 있다.



[동화] 여덟 개의 꽃잎모양 빵 '로디 김방 와루'를 아세요?

Apakah kamu tahu roti berbentuk delapan kelopak bunga,
Roti Kembang Waru?

임솔리(MISJ G4)

“김지로! 학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일상, 학교, 학원이 다 지루하고 지겹다고?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엄마는 지로가 변명할 세도 없이 냅다 다그쳤다.

그 시각 도훈이네 집에서 도훈이 엄마가 똑같은 이유로 도훈이를 혼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TV에서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삶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족자카드타 Roti Kembang Waru 투어!! 공짜!!

말 그대로 공짜로 삶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 준다는 투어였다. 지로 엄마는 지로 혼내는 걸 그만 두고 도훈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도훈이는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는 전교 1등이지만 학교, 학원, 숙제가 반복되는 일상을 귀찮게 여기고 지겨워 한다. 반대로 지로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책도 싫어하는 게임쟁이지만 그것조차 지루하고 재미 없다고 투덜댔다. 그래서 오늘 학원 선생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버린 지로의 말에 도훈이도 맞장구를 쳤던 것이다.

아무튼 지로 엄마는 도훈이 엄마에게 광고 내용을 알려주고 도훈이와 지로를 투어에 보내자는 등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결국 두 엄마는 둘을 투어에 보내자고 합의했고 그렇게 지로와 도훈이는 단 둘이 족자에 가게 되었다.

지로 엄마는 혹시 둘이 게임만 할까 봐 각자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 핸드폰으로 뭘 했는지 또 얼마나 했는지 기록이 되는 어플 등등을 깔아 두었고 도훈 엄마는 도훈이가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 가방을 싸다. 둘만 가는 여행이 엄마들은 걱정되었지만 버튼을 누르면 엄마들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어플을 마지막으로 깔고, 보험까지 가입한 뒤 조금 안심이 되었다.

도훈이는 어른 없이 여행가는 게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늘 옆에서 감시하는 어른들이 없으



니 마냥 좋은 기분이었다. 엄마들이 핸드폰에 깔아 둔 어플은 지울 수 없었고 자카르타에서 족자까지는 한 시간도 안 걸리기에 어플은 사실 쓸 일도 없을 것 같았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공항에 내려 주고 돌아갔다. 자카르타 국내 공항에 도착한 지로는 도훈이에게 물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도훈이는 미리 공부를 해 둔 덕에 “스타벅스 지나서 게이트 8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라고 단박에 대답했다.

그렇게 무사히 비행기를 탔고 둘은 족자카르타에 무사히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한 지로는 새 공항이 깨끗하다며 놀랐지만 웹사이트에서 미리 본 도훈이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도훈이와 지로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이 곳에서 느끼게 될 수많은 것들을.

공항에서 나온 도훈이와 지로는 택시를 타고 투어에서 예약해 준 숙소로 도착했다. 절벽에서 프람바난이 내려다 보이는 빌라였다. 택시 안에서 도훈이는 지로에게 프람바난이 생겨난 배경이 된 로로 종글랑(Roro Jonggrang)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덕에 지로는 신이 나서 물었다.



“도훈아 저기 보이는 그…… 뭐냐…… 프론 바나나? 뭐 그거도 우리 일정표에 있나?”

“응, 있어! 그리고 프론 바나나가 아니라 프람바난이야. 오케이?”

도훈이는 일정표를 꺼내 보았다.

“이제 <산속의 숨겨진 예술 박물관>에 갔다가 밤에는 <삼비사리 사원>가고, 내일은 <바떡 박물관>, 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네.”

“와! 정말?”

“야! 더 들어봐! 쉬는 시간이 <끌라똥>구경이라, 밤에는 프람바난에서 공연보기, 마지막날 아침에 <Roti Kembang Waru>라는 빵을 먹고 보

로부두르를 가면 끝인가 본데?”

설명이 끝나자 지로가 말했다.

“죄다 지루하기 짝이 없네. 그래도 빵은 맛있겠다.”

그렇게 도훈이와 지로는 침대에 드러누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들의 홀로그램 손이 튀어나와 지로와 도훈이는 끌려 나가다시피 밖으로 내보내졌다.

“애들아! 너희들 얼른 일어나서 안 나가고 뭐해? 어서 예술 박물관으로 가야지!”

머라빠 화산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 산속 예술박물관에서 1시간 동안 지루한 관람을 마쳤다.

투어는 힘들었다. 가이드 북이나 안내문에 써 있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지로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던 도훈이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정신 없이 이틀이 지나고 그나마 지로가 기대했던 꽃 빵을 먹으러 가는 날이 찾아왔다. 거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다. 그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아주 옛날방식으로 빵을 굽는 곳이었다. 냄새는 좋았지만 다음 장소까지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빵을 사서 보로부두르에 가서 먹기로 했다.

보로부두르는 생각보다 덥고 올라가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정상에 올라간 그때 도훈이가 말했다.

“으악 너무 힘들어, 겨우 올라왔네”

“그러게, 너무 힘들니까 우리 저기 앉아서 아까 산 빵 좀 먹자” 지로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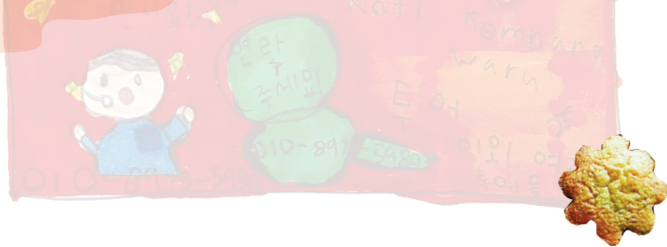
지로가 가리킨 곳은 마지막 층 둘 아래 그늘이었다. 도훈이는 책가방에서 빵 두개를 꺼냈다. 그리고 하나를 지로에게 주었다. 둘은 거의 동시에 빵을 베어 물었다. 지로가 빵을 씹으며 말했다.

“꾸으에……. 괜찮은데! 오물오물 찹찹.”

그 말에 도훈이도 한마디 했다. .

“음 끝 부분은 바삭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 나저나 여기 하늘 진짜 파랗다.”

“그러게! 자카르타는 맨날 회색인데, 근데 도훈아 하늘이 없으면 어떨까?”



지로가 물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늘이 없어질 수 있나?” 도훈이가 말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 봐야지.”

지로의 말에 도훈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오~ 지로 네가?”

자존심이 상한 지로가 한마디 쏘아붙였다.

“야 됐고! 빨리 빵이나 먹자!!”

빵을 두 입, 세 입 정도 먹었을 때쯤 갑자기 사람들이 멈추고 사방이 조용해졌다. 둘은 시간이 멈췄다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몇 초 뒤, 가장 위에 있던 스투파가 열리더니 희미한 연보라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훈이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더운데 연기가 난다는 건 어딘가 드라이 아이스가……”

이 순간에도 과학 설명을 하고 있는 도훈이를 지로가 팔꿈치로 쿡 찌르는 순간 순식간에 아이들은 스투파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들과 아이들의 핸드폰 연결도 끊어져 버렸다.

아이들은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도훈이의 설명도 어둠속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이야, 중력 덕분에 물과 공기가 지구에 밀착되어 있는 거라...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

갑자기 주변이 잠잠해지자, 두 아이는 눈을 떴다. 키가 조금 조금씩 작아진 아이들은 놀랍게도 보로 부두르가 아닌 땅 속, 그러니까 정확히 지상에서 5,000Km 정도 떨어진 곳 이었다. 놀란 지로는 멍한 표정을 지었고 도훈이는 속이 울렁거리는지 구역질을 하다 먼저 말을 꺼냈다.

“여기는 꼭 방처럼 생겼네. 엄마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알까?”

도훈이는 계속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도훈이는 구석에 쪼그려앉아 고개만 저었다.

“도훈아……?”

지로가 두려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 나도 잘 모르겠다고!”

도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실, 도훈이는 겁쟁이라는 별명이 있다. 늘 그걸로 놀림을 받는데 지로를 만나서 마음을 다잡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였다. 가끔씩 다시 겁쟁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나는 고무나무 뿌리야.”

“나는 반얀나무 뿌리야”

“근데 너희들 여기서 뭐해?”

나무들이 물었다.

도훈이가 나무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었다. 나무들은 알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을 꺼냈다.

“너희들 우리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다시 돌려보내 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좋아요!!!” 지로와 도훈은 동시에 대답했다.

“다음 중 뿌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건 무엇인지 맞춰 봐. 첫째, 식물을 땅에 고정한다. 둘째, 물과 무기질을 흡수한다. 셋째,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든다. 넷째, 영양분을 저장한다. 무엇일까?”

두 눈을 맞춘 아이들은 동시에 대답했다.

“3번!! 근데 말이야, 광합성은 잎이 하는 거야, 뿌리가 아니라!!!”

도훈이가 덧붙였다. 지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휴. 잘 찍었군.’

나무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다로 가는 문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내뿜는 공기를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도 마실 수 있는 거야. 기억해.”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다시 바다로 빨려 들어갔다.

놀랍게도 바다 속인데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무가 말해 준 산호초 마을로 간 아이들은 바다 속 물고기와 동물들이 모두 아픈 것을 발견했다. 미안해 질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났다. 뭘 해야 할지 깨달은 아이들은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웠다. 거북이 눈에 박힌 페트병 뚜껑도 떼 내어 주었다.

그것을 본 바다 요정은 거북이 등에 아이들을 태워 땅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었다. 거북이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아이들은 풀썩 주저 앉았다. 온몸이 젖어 춥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한 원주민이 다가왔다.

“Monggo!!! Ayo Pergi ke ruma saya!”

(죽자카르타에서는 안녕을 몽고라고 한다)

지로와 도훈이는 너무 지친 나머지 원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예스! 예스!” 대답했다.

원주민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는데 원주민은 생각보다 훨씬 작했다. 따뜻한 불을 피워 둘의 옷과 몸을 말려주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구워 주었다. 몸이 녹자 기분이 좋아졌다.

“도훈아, 우리 진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좀 더 힘을 내 보자!”

“응 알았어”

원주민이 건내 준 고기를 허겁지겁 먹고나서 둘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뜨…… 리…… 마…… 까…… 시……”

막상 인사는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때 파스한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을 폭신한 풀이 가득한 언덕으로 이끌었다. 둘은 그 곳에 누워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너무 지쳐 있었지만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둘은 금세 잠이 들었다.

눈을 뜨자 뜨거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감동의 눈물인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둘은 눈물을 흘리며 해가 뜨는 쪽으로 둘은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동안 안전한 집에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며,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웃고 떠들고 재밌게 노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했는지를.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 몸과 마음을 녹이는 불과 바람, 별과 달,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말이다.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자, 갑자기 햇빛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세사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죽자에 다녀온 아이들의 일상은 단번에 바뀌었다. 더이상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지 않았다.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엄마들이 뭐가 가장 즐거웠는지 물었지만 웃으며 “여덟 꽃잎 모양 빵 먹은 거!”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지로와 도훈이는 책상 앞에 <로띠곰방와루의 의미>라고 쓰여진 종이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

하늘, 땅, 불, 물, 바람, 달, 별, 해.

이렇게 8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 Roti Kembang Waru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죽자카르타 kota Gede의 오랜 전통과자로 16세기 마타람 이슬람 왕국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귀족들이 즐겨 먹던 간식으로 2025년 현재 3대째 가업을 유지하고 있다. 8개 꽃잎을 가진 와루라는 꽃 모양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아스타 브라타(Asta Brata)로 알려진 자바의 전통 8가지 덕목- 땅, 물, 바람, 불, 태양, 달, 별,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원한 우리집 막내 몽이



몽이

- 🐾 이름: 몽이(몽식이)
- 🐾 나이: 16살(2009.09.12. 입양)
- 🐾 견종: 포메라니언인 줄 알았으나 진돗개와 스피츠, 그 어딘가
- 🐾 먹던 간식을 뺏어도 뺏기고, 온 가족의 장난도 미간을 찌푸려 가며 참아주며, 귀찮지만 간식을 위해서라면 참고 옆드려주는 너그러운 강아지

🐾 친구가 다가오고 따라와도 내 갈 길을 가는 무심하고 순한 할아버지

🐾 앞을 보진 못하지만 여전히 가던 길로 가야 하고, 가족들이 먹는 것은 자기도 다 먹어야 하는 고집은 남아있음

가족들이 기억하는 몽이의 순간들

몽이는 두 눈이 다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강아지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터덜터덜 걸음으로 걸어다니며, 덜덜덜 떨며 가기 싫은 병원에도 자주 가야 하지만, 몽이에게도 산책줄이 풀리면 공원 위로 자유를 찾아 뛰어가 버리고 작은 나뭇잎과도 기 싸움을 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지나가면 짖고, 크리스마스엔 짹어주고, 엄마 아빠와 등산도 즐기던 가족들이 기억하는 몽이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막내
오래오래 살아라 ♥

아빠와의 추억: 검단산 등산

아빠, 엄마보다 앞서 걷고 뛰며 산을 오르던 중 절반쯤 올랐을 때 갑자기 별에 쓰여 걷지 못했다. 놀라 급히 안고 달려 내려와 주차장에 도착하니 또 멀쩡하게 걷게 되었다. 다시 산을 올라 결국 정상까지 찍은 뽀이는, 내려올 때는 자기를 들어 올리라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안겨 편안하게 산을 내려왔던 날.



엄마와 추억: 어묵볶음 쟁탈전

반찬으로 한가득 만들어둔 어묵볶음을 한김 식히려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보니 절반 이상 사라진 상황. 어묵볶음에 든 양파까지 배불리 먹은 뽀이 급성빈혈로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 바로 입원하게 되었다. 불사조 뽀이가 별인 사건 중 하나.



FROM. 큰 누나

우리 뽀이는 최고의 강아지. 귀여움도 예쁨도, 못생김도 최고, 착한 성격도 최고! 산책이 늦어져도 얌전히 기다려 주고, 뽀뽀 100번의 귀찮음도 참아 주고, 약도 잘 먹고 입에 있는 간식을 꺼내도 넘어가는 최고의 강아지! 뽀도 잘 싸고 뽀도 잘 먹고 뽀도 잘 자는 내 강아지.

집사: 김예진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6-2 교사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실정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 주체(자연인, 공법인 혹은 사법인)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소유권, 사업권(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및 개발권 등으로 분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으로 같은 토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업사업허가나 조림사업허가나 양어사업허가 등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습법에 따라 지역 사회, 단체 혹은 개인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아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토지법을 이해하는 데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과 사업장(공장, 사무실, 점포, 농장, 양어장 등)이 모두 토지 위에 있으며 토지법으로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동포는 현지 토지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제33조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통치 350년 동안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토지를 수탈당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습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첫 법률은 1870년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 식민통치자가 제정했으며, 1945년 독립 후에도 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지법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에야 이르러서 기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지법을 폐기시키고, 농업(토지)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1960년 제5호 (UNDANG-UNDANG No.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를 제정 이래 지난 65년 동안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다.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용도,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1.2.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 시/군 단위에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rtanahan)는 중앙정부 토지원(Badan Pertanahan Nasional/BPN) 소속이며, 토지원의 Head는 토지원 장관이다.

2.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조림, 농장, 광산 개발,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리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현지 실정이다. 토지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주민 공동소유권 (Hak Ulayat) 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업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하려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부 근거가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000m²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000m² 이상 보유가 불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얻어야 5,000m²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 혹은 고정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단체,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국제기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경작권(Hak Guna Usaha/HGU),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사용권(Hak Pakai/HP), 개발권(Hak Eksploitasi/HE) 등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

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도입하면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9. 소유권(Hak Milik/HM)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4.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5.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5.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5.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5.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5.4. 상술한 “9.2” 항 혹은 “9.3” 항에 해당되는 경우

9.5.5. 지진, 화산 폭발,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로 살아가는 통번역사의 이야기 7]

이 다정함이 모여 아주 조금만 더 행복해지길



월루증 에라닝띠아스 (아증)
통번역사 | System Ever Indonesia

3월 3일. 거래처 회사로 첫 출근을 한 날이 었고 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갔다. 닥쳐오는 모든 일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나는 내가 흘린 웃음과 눈물만큼 성장한 것 같다.

집에서 독립한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되었다. 첫 독립 경험이었지만 나름 괜찮았다. 방 정리부터 빨래, 설거지, 요리까지 스스로 해내며 소셜 속 주인공처럼 생활했다.

사무실에서 주재원님께 혼이 날 때면 ‘괜찮아. 난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동료들에게는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어차피 사무실에서 나만 혼나는 것도 아니니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일 더 잘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다. 원래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봐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빠르던 내 일상이 멈춘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설마, 나도 남자친구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하긴, 26년 동안 모태솔로인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 적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기라서 날씨가 매일 오후에 흐려서 마음까지 쓸쓸해진 걸까. 이런 날씨일수록 따뜻한 사람의 위로가 더 간절해진다. 애써 일에 집중하려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다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책 할인 행사 ‘빅 배드 울프 북 세일(Big Bad Wolf Book Sale)’에서 《이 다정함이 모여 아주 조금만 더 행복해지길》이라는 책을 샀다. 한국어 원본이 아닌 인도네시아어로 된 번역본이라서 작가님이 책을 쓴 의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고민과 걱정이 별일 아니라는 듯 공감 받는 느낌이 들며 위로를 얻었다.

사랑과 일에 대한 고민, 가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은 이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기 마련이지! 사위가 어두워지면 복잡한 생각이 드는 나에게 딱 맞는 책이다.

지금은 나 자신과 일에 집중해도 괜찮다. 창밖에 내리는 밤비에 나의 외로움도 씻겨 내려가기를. 한 권의 책 같은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는 분명히 가슴 뛰는 근사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2025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5.1.1 ~ 2025.12.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300,000,000
2	명예회장	승은호	PT. KORINDO GROUP	150,000,000
3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0
4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50,000,000
5	명예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150,000,000
6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100,000,000
7	명예고문	마용도	PT. YONGMA	100,000,000
8	명예고문	송창근	PT. KMK GROUP	100,000,000
9	명예고문	정필립	PT. KODECO ENERGY CO LTD	100,000,000
10	고문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75,000,000
11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75,000,000
12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75,000,000
13	고문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75,000,000
14	고문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75,000,000
15	고문	손한평	PT. DONGSAN HOLDINGS	75,000,000
16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75,000,000
17	고문	이기홍	PT. TIMUR SATRIA PERKASA	75,000,000
18	고문	이호덕	PT. ROYAL SUMATRA GROUP	75,000,000
19	수석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50,000,000
20	수석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150,000,000
21	수석부회장	이지완	PT. JIN YOUNG	150,000,000
22	부회장	강수한	PT. CHAEUM DESIGN	75,000,000
23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5,000,000
24	부회장	구형회	PT. SHINHAN BANK	75,000,000
25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ARUNIA	75,000,000
26	부회장	김응철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75,000,000
27	부회장	김재홍	PT. DAE IN TECH INDONESIA	75,000,000
28	부회장	김창근	PT. KODECO ENERGY CO LTD	75,000,000
29	부회장	서윤석	PT. PRATAMA ABADI INDUSTRI	75,000,000
30	부회장	송기섭	PT. COSMOS INDO INK	75,000,000
31	부회장	승범수	PT. TSE GROUP	75,000,000
32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75,000,000
33	부회장	이근대	PT. DONGBANG	75,000,000
34	부회장	이상현	PT. JIPYONG SOUTH ASIA	75,000,000
35	부회장	이승수	PT. SINYOUNG ABADI	75,000,000
36	부회장	이해왕	PT. BANK KB BUKOPIN TBK	75,000,000
37	부회장	장윤하	PT. HARINDO	75,000,000
38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75,000,000
39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75,000,000
40	부회장	최지훈	PT. TIGA WIJAYA SUKSES	75,000,000
41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75,000,000
42	자문위원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20,000,000
43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000,000
44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OYOUNG DUNIA SUBUR	20,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45	자문위원	김경국	PT. CYBER WORLD INDONESIA	20,000,000
46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000,000
47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000,000
48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20,000,000
49	자문위원	김재훈	PT. BNG AKUNTAN INDONESIA	20,000,000
50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20,000,000
51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000,000
52	자문위원	박의태	PT. SKYTAPE INDONESIA	20,000,000
53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000,000
54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20,000,000
55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20,000,000
56	자문위원	이종남	PT. SINYOUNG ABADI	20,000,000
57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20,000,000
58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000,000
59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000,000
60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20,000,000
61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20,000,000
62	자문위원	하재수	PT. ROYAL PUSPITA	20,000,000
63	이 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5,000,000
64	이 사	강용복	PT. SIN SUNG INDONESIA	15,000,000
65	이 사	강진호	PT. CHEONGDAM GARDEN	15,000,000
66	이 사	강형구	PT. TUGU INSURANCE BROKERS	15,000,000
67	이 사	곽봉규	PT. FOODSTAR GLOBAL	15,000,000
68	이 사	고광희	PT. IRUM GLOBAL INDONESIA	15,000,000
69	이 사	권용숙	PT. JIPYONG SOUTH ASIA	15,000,000
70	이 사	김동석	PT. DUNIA TRASPORTASI LOGISTIK	15,000,000
71	이 사	김민수	PT. PARK LAW FIRM	15,000,000
72	이 사	김상규	PT. OK CONSULTING	15,000,000
73	이 사	김 신	PT. YUBI TECHNOLOGY	15,000,000
74	이 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5,000,000
75	이 사	김영주	PT. SAINT JAMES	15,000,000
76	이 사	김일태	PT. OROM	15,000,000
77	이 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5,000,000
78	이 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5,000,000
79	이 사	남궁훈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15,000,000
80	이 사	남창우	PT. KORNET	15,000,000
81	이 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5,000,000
82	이 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15,000,000
83	이 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5,000,000
84	이 사	박남형	PT. APLUS LOGISTIK	15,000,000
85	이 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5,000,000
86	이 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5,000,000
87	이 사	성예식	PT. F1-LOGIX	15,000,000
88	이 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5,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89	이 사	송진은	PT. KMK GROUP	15,000,000
90	이 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
91	이 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5,000,000
92	이 사	양호정	PT. KISWIRE INDONESIA	15,000,000
93	이 사	염정윤	PT. HANSAE INDONESIA UTAMA	15,000,000
94	이 사	오동훈	PT. FNS TRANS BUANA	15,000,000
95	이 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5,000,000
96	이 사	이동규	PT. DAEHAN GLOBAL	15,000,000
97	이 사	이성삼	PT. LIGA SEJATI SEJAHTERA	15,000,000
98	이 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5,000,000
99	이 사	원은재	PT. ACCESS MOBILE INDONESIA	15,000,000
100	이 사	장영관	PT. LAYCO	15,000,000
101	이 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5,000,000
102	이 사	최희정	PT. MULTI SOLUSI NUSANTARA	15,000,000
103	이 사	한지훈	PT. GLOBAL ALPHA LOGISTIC	15,000,000
104	이 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5,000,000
105	이 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5,000,000
106	이 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5,000,000
107	사무총장	임성필	PT. LSP INDONESIA	1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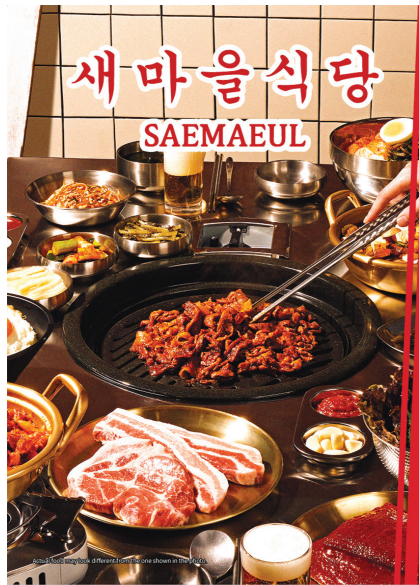
2025 안인뉴스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고문	김준규	CIPTA ORION METAL	50,000,000

2025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입금순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1	허소영	300,000	19	홍예지	300,000	37	오준식	500,000
2	임성필	300,000	20	이지선	500,000	38	최하진	500,000
3	이정숙	300,000	21	이지선	500,000	39	김지윤	500,000
4	박희도	300,000	22	백현채	500,000	40	하지영	500,000
5	최지은	300,000	23	최석일	500,000	41	김담빛	500,000
6	천향진	300,000	24	강희중	500,000	42	최장식	500,000
7	송재선	1,000,000	25	배선목	500,000	43	장휘진	500,000
8	김예진	300,000	26	구수진	500,000	44	이지선	500,000
9	신진섭	300,000	27	이지선	500,000	45	이주영	500,000
10	No Name	300,000	28	강현구	500,000	46	박정민	500,000
11	김경희	300,000	29	이지선	500,000	47	황유미	500,000
12	김규리	300,000	30	이영미	500,000	48	최희진	500,000
13	차윤재	300,000	31	김근수	500,000	49	김윤영	500,000
14	최인실	300,000	32	이윤정	500,000	50	이지선	500,000
15	김윤진	300,000	33	홍석영	500,000	51	이희경	500,000
16	이지선	500,000	34	오세명	500,000	52	이지선	500,000
17	박재걸	300,000	35	유정화	500,000	53	이지선	500,000
18	류재철	300,000	36	이지원	500,000			



The Original Korean BBQ

SAEMAEUL PIK

새마을식당 3호점

OPEN영업중

📍 Golf Island, Ruko No.01-02 Boulevard Blok A, Jkt Utara,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4470

+622122570258

1호점

새마을식당 SCBD점

📍 SCBD Lot 8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 RT5/RW3, Senayan, Kec.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190

+6285972574412

2호점

새마을식당 Gading Serpong점

📍 Jl. Gading Serpong Boulevard Blok CBD Nolot 3, Curug Sangereng, Kec. Klp. Dua, Kabupaten Tangerang, Banten 15811

+6285215061211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1540

하나유치원	844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카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뽕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뽕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찜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뽕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하나마트 8459 0064
Q MARKET(구 한일마트) 7212 0299
한일마트(땅그랑) 0813 1620 0225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 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깡닭 4584 5837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Bornga) 739 6229
본가(족자카르타) 0274 2831440
본가(Wolter Monginsidi) 0811 1880 826
본가(Blok M) 0811 9896 897
본가(Kelapa Gading) 0812 1989 7004
본가(Lippo Mall Puri) 0811 9312 868
본가(Gading Serpong) 0813 8719 1373
본가(Cikarang) 0813 8723 0639
본가(PIK) 0858 8163 0122
본가(Central Park) 0811 8000 3637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북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식당(Saemaoul Sikdang) 0811 9000 1051
새마을식당(PIK) 0859 7257 4412
새마을식당(SCBD) 0859 7257 4412
새마을식당

(Gading Serpong) 0852 1506 12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 4007 7256
아랑진사갈비 0857 8263 7072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 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2 1372 2793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가격은 가볍게, 선택은 즐겁게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어요.
다양해진 스몰 메뉴로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더 싸게,
더 맘껏!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투어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로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가람투어 & 컨설팅 021 5573 1236
0821 1010 3647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	----------

BLUE BIRD	794 1234
-----------	----------

● 하숙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021 300 250 4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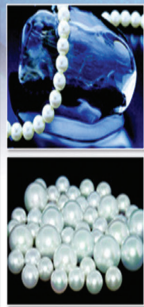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인압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교(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류성운) 0855 1212 148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최재혁) 0811 87 0386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이동현) 0812 2336 6772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헌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공 석)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국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부회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사무총장	우 원 필	0812-283-2238
11	발리한인회 [0822-1996-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룸복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바탐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석 태 환	0822-8820-1223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한인회 [0411-483-6713]	회장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